

Quantum Leap 2024*

글로벌	지역을 품은 글로벌 대학
앞선 연구	특성화·융합 연구 지원
열린 교육	도전, 소통, 창의 인재
산학협력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
성과 경영	지속가능한 운영 체제



동
이
는
지
금

119번째 소식지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493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550번길 37(하단동)
구덕캠퍼스 49201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32(동대신동 3가)
부민캠퍼스 4923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부민동 2가)

www.donga.ac.kr

블로그 blog.naver.com/donga_pr_bot
페이스북 facebook.com/dongauniv
인스타그램 instagram.com/donga_univ
유튜브 youtube.com/c/dongauniversity1946

DONG-A UNIVERSITY since 1946



Dong-A University Newsletter Vol. 119

동이는 지금

Issue Focus 학기 주요 소식
Hot News 주요 행사·인물 동정
Dong-A People 동아인 인터뷰
Happy Donation 발전기금 소식

동아대학교, 그리고 동아인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119번째 소식지



승학캠퍼스 한림생활관 전경

76살, 무르익은 배움으로 드높은 이상을 향해

넓은 하늘을 새들이 자유롭게 비상하고,
뿌리 깊은 나무가 크게 성장하듯
동아대는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든든한 터가 돼 왔다.
세계 위에 우뚝 서자.
동아인들이 뜨겁게 응답할 것이다.



04 ISSUE FOCUS 01

04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으로
대학과 국가 혁신을 주도하다



10 ISSUE FOCUS 02

10 기업현장 반영한 교육으로
실무인재 육성한다

동아는 지금

DONG-A UNIVERSITY NEWSLETTER
2022 VOL. 119



14 HOT NEWS

- 14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인증자격모니터링 'All Pass'
- 15 미래 산업 선도 인재 양성 박차
- 16 교육부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선정
- 17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13년 연속 선정
- 18 2022년 상반기 '개인기초연구사업'
(이공분야) 역대 최대 선정
- 19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 20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지원 다각화
국제화 사업 활발 추진
- 21 지자체-공공기관-기업 등과 업무협약 체결,
산학연 협력 적극 나서
- 22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다양한 일상 회복
- 23 변호사 시험 및 지역인재 선발
합격자 배출 '기염'
- 24 남영신, 오남자, 진정무, 이정환 석좌교수 임용
- 25 총동문회 주최 '6.1 지방선거
당선자 축하연' 열려
- 26 교수들, 정부 표창 등 수상 줄이어
- 27 대학원생 및 학부생,
각종 대회에서 수상 활약



28 DONG-A PEOPLE

- 28 동아의 영혼을 가꾸는 사람 되길
하태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30 동아대에서 내린 뿌리, 부산의 희망이 되다
박형준 부산시장
- 32 동문들과 함께 일할 날을 기대하며
배종범 회계사
- 33 모두가 누리는 공정함을 향해 가다
김대영 검사



34 HAPPY DONATION

- 34 발전기금 기부뉴스
- 39 발전기금 기부현황 / 후원의 집 소개
- 42 발전기금 소개 및 후원 신청서

동아대학교 소식지(통권 제119호)

발행일 2022년 10월
발행인 이해우
발행처 동아대학교 대외국제처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550번길 37(하단동)
T. 051)200-6042~3 F. 051)200-6015
www.donga.ac.kr / fund.donga.ac.kr
디자인 디자인대훈 051)898-0330

동아는 지금 제호 소개

동아대학교가 설립되기 10년 전 1937년 프랑스는 아르데코(art deco) 기를 맞고 있었다. 그 당시 프랑스를 대표하는 서체로 인정받은 「페뇨(Peignot)」는 1937년 파리 국제 박람회의 공식 서체로 지정된 오랜 역사의 서체로, 일정한 굵기 대신 획의 차이가 분명한 휴머니스트 산세리프에 가까운 서체이다. 직선과 곡선이 잘 어우러진 페뇨 서체의 특징을 한글에 접목해 「동아는 지금」의 오리지널 제호를 개발했다. 동아대학교의 오랜 역사를 담으면서도 현대적인 세련미를 녹여냈다.
(제작 :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김재홍)

ISSUE FOCUS

01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으로 대학과 국가 혁신을 주도하다

동아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2021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A등급'을 받았다. 사회 변화에 따른 대학의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노력한 끝에 성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동아대 대학혁신사업단은 성과 공유회와 포럼을 개최해 구성원들과 그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았다. 그리고 지난 5월,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1차년도 자율혁신계획을 작성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새로운 내용의 혁신을 추진 중이다. 본격적인 2주기 사업 추진 전, 1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알아보도록 하자.



지난 2020년 지역 대학 최초로 구축한 하이브리드형 자동녹화 첨단강의실

성과에서 성장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미래 사회에 대응해 대학의 기본역량 강화 및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하고 자율혁신을 통해 국가 혁신성장의 토대가 되는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부터 본격 시작했으며 1, 2차년도 사업을 종료하면서 연차평가를 거쳤고, 3차년도에는 사업기간 전체 주요성과에 대한 종합평가가 이뤄졌다. 이에 동아대는 최우수 'A등급'을 받음으로써 3년간 200억여 원을 지원받았다. 동아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전략과 추진 실적이 대학 중장기발전계획과 체계적으로 연계돼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강화한 '마이크로모듈 교육과정 및 이중전공제'를 도입해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융복합 교육을 강화하고, 유연학사제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동아 BEYOND

지역·세계와의 울타리 없는 교육 중심의 대학을 의미. 학생들의 주도적인 학습, 소통과 오감을 바탕으로 한 교육자 역할 강화, 교직원 전문성 배양, 동문 중심 동아 공동체 조성, 지역공동체 역할 강화, 기업과 공동성장 등을 추구

코로나19 이전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오픈소스 기반 '스마트러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제적 대응도 돋보였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수업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원격수업관리위원회'와 '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 등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대학혁신사업단은 "성과평가 결과는 3주기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사업 선정'과 함께 동아대의 교육혁신과 발전을 위해 구성원들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우수한 교육 성과 창출을 위해 교육혁신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중심의 '동아 BEYOND 교육혁신'

지난 2018년 시범(PILOT) 사업을 시작으로 동아대는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수행해 왔다. 그리고 중장기 발전계획 'Quantum Leap 2024'와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연계해 '동아 BEYOND 혁신 생태계 구축 및 확산'을 비전으로 BEYOND 혁신 체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동아대는 4대 영역에서 혁신 프로그램을 설계해 추진해 왔는데 △교육 부문 '스스로 진화하는 학생을 키우는 BEYOND 교육혁신' △연구 부문 '선도 연구분야 육성을 위한 연구지원 모델 혁신' △산학협력 부문 '지역산업과 상생·발전하는 취·창업 지원체계 혁신' △경영 및 글로벌 부문 '대학 체질 개선을 위한 지원체계 혁신 및 글로벌 역량 강화' 등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주요성과

대학혁신지원사업 종합평가
최우수 'A등급'
3년간 **200**억여 원 지원



'마이크로모듈 교육과정 및 이중전공제' 도입



오픈소스 기반
'스마트러닝 시스템' 구축



SMART LEARNING SYSTEM





‘2021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부산·울산·경남권역 성과 포럼’ 참석자들

전국 유일 실시간 취·창업
멘토링 플랫폼 구축 및 운영

DA-ITDAA

다잇다 시스템 및 카카오톡 연계로
현대자동차, 기업은행 등 학생 선호 기업
재직 본교 선배 781명, 창업 멘토 24명
실시간 취창업 멘토 제공(2019년 10월 신규
구축 후 현재까지 약 2,500여 건 멘토링 제공)



학과 내 또는 학과 간 조합이 가능한 최소단위의 교과목 묶임으로 설계된 교과과정인 사회맞춤형 교과과정 ‘마이크로모듈-이중전공제’도 있다. ‘마이크로모듈-이중전공제’는 일체형·학과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모듈형·학생 중심 교육으로 전환, 학생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 외부 환경과 학과 현황, 산업체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 진출분야 연관성과 직무역량 중심으로 편성, 교과목 설계를 진행함으로써 사회 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학생의 희망에 따라 교과목별 개별 수강도 가능하다. 2021학년도 기준으로 동아대는 경영학과 등 모두 19개 학과에서 42개의 마이크로모듈을 개발했으며, 매년 확대 개발 및 운영 고도화를 통해 동아대만의 차별화되고 특성 있는 교육모델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 대학 최초로 첨단 통합 미러링(Mirroring)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협력형 강의실을 구축, 융합

교육과 활발한 상호작용에 최적화된 환경도 빼놓을 수 없다. ‘On-러닝 교육 체계 고도화’를 목표로 스마트러닝 시스템(LMS)을 새롭게 정비해 온라인 수업의 질을 개선했으며, 온-오프라인 혼합수업 지원도 가능하다.

전국 대학 최초로 구축한 실시간 온라인 취업 멘토링 플랫폼 ‘다잇다(DA-ITDAA)’는 분야별 재직 선배들과 후배들을 이어주며 ‘부산시 취·창업 특화사업’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 학생들이 심리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진로개발센터도 신설했다. 센터에서는 진로동아리, 진로또래상담, 진로멘토링,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등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전문화된 진로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의 진로설계와 취업 준비를 돕고 있다.



(왼쪽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동아대 대학혁신 성과 포럼 온라인 발표 모습 1, 2 / 온라인 취창업 멘토링 플랫폼 ‘다잇다’ / 성과 공유회 현장 모습



성황리에 개최된 ‘성과 공유화’와 ‘성과 포럼’

동아대 대학혁신사업단은 지난 2019년부터 구성원과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공유회, 포럼 등을 꾸준히 개최해오고 있다.

특히 ‘2021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구성원 성과 공유회’를 개최해 사업 연차평가(2020년) 및 종합평가(2019~2021년) 결과와 3차년도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예산 운용 및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성과 공유회는 지난해 11월 송학캠퍼스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열렸는데 사업단 관계자를 비롯해 사업 수행 부서·학과 팀장 및 실무자 등 모두 80여 명이 참석했다.

사업운영 과정에서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을 들으며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참가자들은 질의 및 응답을 통해 사업목표와 수행과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고, 지속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다.

지난 3년간 진행된 대학혁신지원사업 권역 대학별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종합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2021 대학혁신지원사업 부산·울산·경남권역 성과 포럼’도 개최했다.

부울경 대학혁신지원사업협의회 부회장교인 동아대 주관으로 지난해 12월 개최된 행사에는 ‘대학 혁신을 통한 지역대학의 성장’을 주제로 동아대를 비롯해 17개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포럼은 이문순 총북대 기획처장의 기조강연(‘사회수요를 반영한 창의·융합 전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시작으로 각 대학들의 우수성과 발표로 이어졌다.

마이크로모듈 개발
(2021학년도 기준)



19개 학과에서 42개 개발

스마트러닝 시스템(LMS)
정비로 온라인 수업 개선

LMS



지역 대학 최초로 ‘첨단 통합 미러링
(Mirroring) 시스템’ 구축

MIRRORING
SYSTEM





비대면 수업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구축된 블랙스튜디오에서 온라인 성과 포럼 영상을 촬영하는 이해우 총장



온라인 진로상담 모습



W:E (WEBVISOR-EDUMAP)

기반 맞춤형 진로 지원*

비대면(온라인) 진로 상담 및 진로 프로그램 운영 체계를 구축해 1:1 학생맞춤형 진로 지원을 활성화하고, 참여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인 동아대만의 특색 프로그램

우수 사례는 동아대의 'W:E(Webvisor-Edumap) 기반 맞춤형 진로 지원'(오지영 진로개발 센터 소장)을 비롯해 △경상국립대 '수요자 맞춤형 학사 유연화를 통한 창의·융합 인재 양성'(김영철 재정지원사업추진단 부단장) △고신대 '현장밀착형 전공진로 내비게이션 운영을 통한 실무강화 전공교육 혁신'(황예슬 혁신성과관리센터 팀원) △부경대 '핵심역량 중심 교양교육 강화'(김도훈 교육혁신성과원장) △부산대 '학생성공을 위한 PNU 학습역량 강화 체계 구축'(박진주 기획처전략사업실 연구원) △경남대 '지역에 공헌하는 대학 자학동행 사업'(정은희 지역사회공헌센터장) △영산대 '경력개발시스템 활용 사례'(이재영 와이즈인재개발센터장) 등이다.

이해우 총장은 축사 영상을 통해 "지역대학들은 인구절벽과 산업구조 변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온 결과 많은 혁신 성과를 얻었다"며 "지난 3년간 부울경 지역 대학혁신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 공감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이 자리가 앞으로 대학혁신과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석수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장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각 대학은 적지 않은 성과와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다"며 "대학들은 특성에 맞는 규모 적정화와 지속적인 혁신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기곤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장도 "이번 포럼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대학이 협력해서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동아대는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환경적 요소에도 맞춤형 지원과 인프라로 학생들에게 흔들림 없는 교육을 제공해왔다. 교육의 가치를 알고 학생들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지원하는 동아대가 앞으로도 더 큰 성취와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

“

지금까지 동아대는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환경적 요소에도

맞춤형 지원과 인프라로

학생들에게 흔들림 없는

교육을 제공해왔다.

”

MINI INTERVIEW

학생 중심의, 학생을 위한 대학혁신사업단이 될 것

윤갑식

대학혁신사업단장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동아대 대학혁신사업단은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 '2021년 연차평가 및 종합성과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윤갑식 대학혁신사업단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Q 평가에 대한 감회는?

A 지난 2년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였는데 좋은 평가로 이어지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의 교육과 안전을 걱정하고, 학생 성공을 위한 역량 강화에 온 힘을 쏟은 대학 구성원들의 노고 덕분이다.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Q 동아대 대학혁신지원사업 1주기 성과를 자평한다면?

A 동아대는 2018년 파일럿 사업을 시작으로 4년간의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수행하며 많은 혁신을 경험했다.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강화하고 융합교육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코로나19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오픈소스 기반 '스마트러닝 시스템'을 구축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교수학습지원을 강화하고 진로교육부터 취업지원까지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노력도 눈여겨볼 만하다. 무엇보다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가장 큰 성취는 사업 자체가 아니라 대학이 변화와 혁신을 수행할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Q 동아대 대학혁신사업단만의 강점이 있다면?

A '학생 맞춤형'의 '역량 기반' 교육과 '학생 지원'을 들 수 있다. 우리 대학은 마이크로모듈 선택형 이중전공제를 운영해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높이고 핵심역량기반 교육과정 설계 및 환류 체계를 고도화해 교육의 질을 높였다. 학생 맞춤형 '토털 케어 시스템(Total care system)'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과 진로를 돕고, 적응력을 높이고 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A 지난 4년간 노력이 '2021년 연차평가 및 종합성과평가'에서 'A등급'이라는 쾌거를 가져왔다. 2022년부터는 새로운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이 시작된다. 융합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해 융복합 교육을 확산하고, 산업연계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등 교육과 학생 지원 전반에서 산업과 학생의 니즈를 반영해 그 성과를 높일 것이다. 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많이 고민하고, 그 중심에 학생이 있음을 잊지 않겠다.

ISSUE FOCUS

02

기업현장 반영한 교육으로 실무인재 육성한다

낙숫물이 댕돌을 뚫는다는 말이 있다. 꾸준한 노력으로 결국 성취를 이룬다는 의미다. 지금 취업이라는 댕돌을 뚫기 위해 학생뿐만 아니라 이해우 총장, 학생·취업지원처를 비롯한 대학 본부, 각 학과 교수진들이 힘을 한데 모아 낙숫물보다 더 큰 물줄기를 만들고 있다. 특히 이 총장은 취임 당시부터 “교수가 한번 머리를 숙이면 학생 인생이 달라진다”고 강조하며 연일 기업체 현장을 방문,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파악하고 교과과정에 반영하려 노력하는 등 온 힘을 쏟고 있다. ‘동아 제자사랑 1교수 1제자 취업 지원 캠페인’을 비롯해 학생의 성공적인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동아대의 분주한 발걸음을 소개한다.

이해우 총장 몸담았던 '삼성중공업' 시작으로 국내 100대 기업 방문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혁신과 정밀함이라는 자질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고, 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사람과 기술 모두 실력과 유연성을 겸비해야만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학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유능한 인재를 길러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게 하는 데까지 역할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장은 이런 시대적 요구와 “학생 취업을 위해 발로 뛰며 현장 의견을 듣고 기업 수요에 맞는 실무 중심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임 당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2020년 10월부터 국내 100대 기업 중 동아대 졸업생이 대거 진출한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체 방문 활동을 시작했다. 그 첫 번째 방문지는 이 총장이 2007년 동아대 교수로 부임하기 전 13년간 몸담았던 삼성중공업이었다.



남준우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사장(맨 왼쪽)의 설명을 듣고 있는 이해우 총장



**삼성중공업을 시작으로 한
이 총장의 기업체 방문은 대우조선해양(주),
(주)성우하이텍, 리노공업(주), (주)코렌스, (주)성광벤드,
(주)대성메탈, (주)트렉스타, 현대미포조선 등
지금까지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기업 수요에 맞는 학생 교육과 취업 지원, 산학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이날 방문에는 이 총장과 본부위원, 관련 학과 교수진이 동행했다. 삼성중공업 측에서는 남준우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정호현 기술개발본부장, 임봉석 인사지원실장, 심용래 조선해양연구소장, 이종남 기술기획팀장 등 고위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동아대와 삼성중공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양성, 고도화된 기술을 신속하게 개발·공급하기 위한 산학 연계의 중요성과 적극적인 협력·혁신 의지를 확인했다.

이 총장은 “기업에서 근무했던 경험으로 현장에서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하고 그런 인재를 키우려면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지 알기에 총장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장의 흐름을 재빨리 파악하고 이론과 접목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이 원하는 실무중심 인재를 배출하도록 대학의 교육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준우 사장은 “대학과의 공동연구로 친환경 LNG(액화천연가스) 선박 기자재를 국산화하며 산학협력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며 “앞으로 각종 원천기술 분야 등에서 기자재 국산화를 위해 기업과 대학이 팀을 만들어 공동 연구한다면 기업 발전과 지역인재 양성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을 시작으로 한 이 총장의 기업체 방문은 대우조선해양(주), (주)성우하이텍, 리노공업(주), (주)코렌스, (주)성광벤드, (주)대성메탈, (주)트렉스타, 현대미포조선 등 지금까지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에 방문한 이해우 총장(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교무위원들, 삼성중공업 관계자들



‘CTO와의 만남’에서 이해우 총장과 참석자들

“
이 총장은 CEO가 아닌
세일즈맨이라는 생각으로
동아대 졸업생이
많이 진출한 기업을
재임 중 한 번 이상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에 방문한 이해우 총장과 대학본부 보직자들

기업체와 협약도 활발히 추진 미래 신산업 선도 인재 육성

동아대는 학교와 기업이 원-원하는 교육을 실현하고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기업체에 방문해서 청취한 내용을 수렴, 교육과정 개편에 반영하고 '지역인재 육성 협약'도 맺고 있다. 이 총장 취임 후 동아대는 부산 녹산산업단지의 (주) 동화엔텍과 영도산업(주), 경남 김해의 (주)유니크, 경남 창원의 영풍전자(주), 경북 문경의 한국씨앤오테크(주) 등 지역 우수 기업과 연이어 협약을 체결하며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고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특히 이들 기업은 가스 실린더 밸브 생산,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신재생에너지, 4차 산업 기술 및 정보화, 군 훈련용 교육보조재료 및 ICT(정보통신기술) 제품 분야 선도 기업이기에 미래 신산업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의 효과가 기대된다. 최근 이 총장은 신발용 재귀반사필름 세계점유율 1위 기업인 (주)지비라이트(부산 강서구 소재)에서 열린 'CTO와의 만남'에 참석했다. 부산과학기술협의회 등이 주최한 'CTO와의 만남'은 CTO(최고기술경영자) 평의회 회원과 지역 대학 연구자, 교수가 직접 현장에서 만나 최근 과학 및 기술 노하우를 놓고 대화하는 행사다.

이 총장은 “학생의 취업은 대학의 성장과도 직결되는 일인 만큼 총장이 솔선 수범해 학생 취업에 힘쓰고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대학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흐름을 재빨리 파악하겠다”며 “CEO가 아닌 세일즈맨이라는 생각으로 동아대 졸업생이 많이 진출한 기업을 재임 중 한 번 이상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자사랑 1교수 1제자 취업캠페인' 등 전국에서 손꼽히는 취업지원제도

학생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이 총장의 소신은 '동아 제자사랑 1교수 1제자 취업캠페인' 론칭으로도 나타났다.

이 캠페인의 목적은 학교와 교수가 제공한 양질의 교육과정이 사회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고, 학생들이 사회의 적재적소 원하는 곳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 캠페인을 통해 동아대는 교수들이 보유한 기업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제자들의 일자리 창출, 기업 채용 전형 일정에 맞춘 취업 조언과 상담, 학과별 취업 대상자 데이터 체계적 관리로 취업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졸업생과 미취업자를 위한 지속적 관리를 하고 있다.

이 총장은 “교수님들의 전문적인 식견과 혜안은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서 학생들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이해우 총장 등 본부 보직자들과 리노공업에 재직 중인 동아대 졸업생들

동아 제자사랑 1교수 1제자 취업캠페인

교수들이 보유한 기업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제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취지의 캠페인 기업 채용 전형 일정에 맞춘 취업 조언과 상담, 학과별 취업 대상자 데이터 체계적 관리로 취업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졸업생과 미취업자를 지속적으로 관리

동아대는 이처럼 교수와 학교가 학생들에게 쏟는 노력과 관리 역량을 강조하며, 재학생뿐만 아니라 미취업 졸업생도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특징이다.

동아대는 졸업한 선배들이 후배들의 취업 교육에 참여하는 전국 유일의 선순환 취업 지원 시스템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많은 대학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컨설팅 시장과 온라인 플랫폼을 충분히 고려해서 취업준비생들의 요구 수준을 충족하는 실속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동아대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실시간 온라인 취업 멘토링 플랫폼 '다잇다(DA-ITDAA)'는 대기업,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선배들과 취직을 희망하는 후배들을 직종·분야별로 연결해준다. 이 프로그램은 '2019년 부산권 대학별 특화사업 운영 워크숍'에서 취창업 관련 특화사업 분야 최우수상을 받으며 실효성을 입증했다.

최근엔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기업 발굴과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역 대학에서 최초로 체결, 국민취업지원제도 활성화와 지역 대학생 및 졸업생 취업 지원 강화, 고용 증진 등에 노력하고 있다.

또 학년·분야별 취업 동아리 및 선배 참여 프로그램을 더 고도화하고 미국·일본 취업준비반, 공기업 취업준비반, 영아·인적성 성적 향상 동아리, 취업동아리 및 취업 상담 프로그램 등도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 재학생들의 형태·유형별 전문 상담 지원 및 통합 관리를 위해 '라포 시스템(DAU RAPPORT, 통합상담시스템)'도 구축, 진로·심리 상담과 평생 지도교수 상담, 취업 상담, 학습 상담, 국제교류 상담 등 학생 맞춤형 상담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30개 평가준거 모두 충족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인증자격모니터링 'All Pass'

동아대학교가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인증자격모니터링에서 30개 평가준거를 모두 충족(All Pass), 인증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한국대학교육협회의 병설 한국대학평가가원이 실시한 대학기관평가인증은 대학 교육의 질 개선을 유도,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정부 재정지원사업 신청 자격과도 연계된다.

동아대는 이번 대학기관평가인증 자격 모니터링 결과 정원 내 신입생 총원율, 정원 내 재학생 총원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비율 등 6개 필수 평가준거를 비롯한 30개 평가준거를 모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동아대는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자격을 내년 12월까지 유지하게 됐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을 받으려면 전임교원 확보율과 교사 확보율 등 5개 영역, 10개 부문, 30개에 이르는 평가 준거를 일정 수준 이상 충족해야 한다.

동아대는 교육수요자 중심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교양과목과 연계된 비교과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교양교육 학생평가단을 도입, 운영한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아 지난 2019년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획득했었다.

당시 인증평가에서도 동아대는 모든 평가준거를 충족했으며, 특히 '교양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우수사례 대학으로 뽑히기도 했다.

동아대는 지난 2019년 대학기관평가인증 본평가에 이어 올해 인증자격모니터링에서도 'All Pass' 쾌거를 이룬 것을 바탕으로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과 대학혁신지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승학캠퍼스 전경

준거명	기준값	필수평가준거 판정	
		충족(P)	미충족(F)
전임교원 확보율	61%	○	
교사 확보율	100%	○	
정원내 신입생 총원율	95%	○	
정원내 재학생 총원율	80%	○	
교육비 환원율	100%	○	
장학금 비율	10%	○	

* 필수평가준거의 대학값은 최근 3년간(2019년, 2020년, 2021년 공시) 평균임 (단, 교사 확보율은 최근 1년(2021년 10월 공시) 수치임)

▲ 대학기관평가인증 인증자격모니터링에서 평가준거를 모두 충족한 동아대

온실가스 감축·지식재산

'부처협업형 인재양성사업' 수행기관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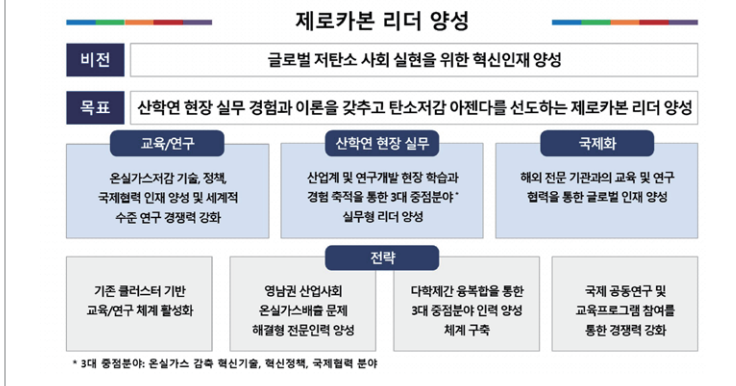
동아대는 신산업·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자율혁신계획과 연계해 추진되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 '온실가스 감축 혁신인재양성사업'(산업통상자원부)과 '신산업 분야 지식재산(IP) 융합인재 양성사업'(특허청) 등 2개 분야를 운영하게 됐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환경·에너지공학부 미래에너지공학 전공은 '온실가스 감축 혁신인재양성사업 제로카본 리더 양성사업단'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요구에 부응하고 산업·경제 구조변화에 대비하는 '글로벌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혁신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산업 분야 지식재산(IP) 융합인재 양성사업'은 IP 기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교수역량 강화 및 융합교육 콘텐츠 개발, 산학협동형 교육 및 연구장려금 지원 등으로 이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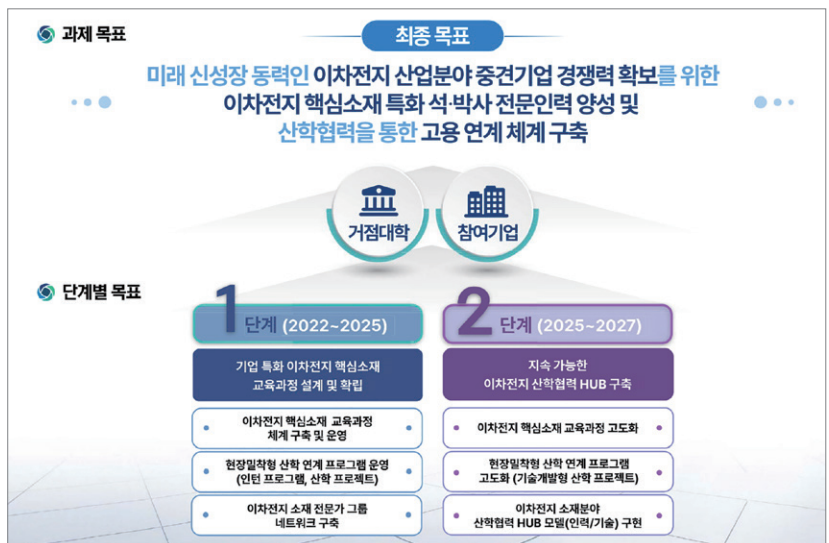
· 컨소시엄 비전 및 목표



'부처협업형 인재양성사업'으로 동아대가 운영하는 '온실가스감축 혁신인재양성사업 제로카본 리더 양성사업단' 비전과 목표

이차전지 핵심소재 분야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선정



'2022년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으로 동아대가 추진하는 '이차전지 핵심소재 중견기업 특화 인력양성사업' 내용

동아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 에너지인력양성사업'에서 '이차전지 핵심소재 중견기업 특화 인력양성'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 오는 2027년 3월까지 5년 동안 이차전지 핵심소재 분야 소재 설계, 합성, 고도분석 등의 역량을 갖춘 산업 친화형 실무 인재 양성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최근 급성장세에 있는 이차전지 산업분야 인력수요 중 특별히 수급난을 겪고 있는 핵심소재 중견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 배출함으로써 이차전지 핵심소재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업이 대학과 함께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에 직접 참여,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요소를 교육과정에 반영할 뿐 아니라 산학장학제도 및 인턴십 제도 등을 운영, 학생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될 예정이다.



LINC 3.0 사업단이 융합전공 산청자를 대상으로 운영한 비교과 프로그램 참가자들

1~3단계 사업 모두 선정 쾌거

교육부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선정

동아대가 교육부의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이하 LINC 3.0)'에 선정됐다. 이로써 동아대는 지난 2012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을 시작으로 2017년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에 이어 이번 LINC 3.0까지 LINC 1~3단계 사업에 빠짐없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올해 LINC 3.0 사업에는 모두 3,025억 원 예산이 들어가며 선정 대학은 오는 2027년까지 최대 6년간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LINC 3.0 사업 가운데 일반대 수요 맞춤형 성장형에 선정된 동아대는 올해 평균 40억 원을 지원받아 산업계와 미래사회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고도화와 기업

지원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동남권 수요맞춤성장형사업에는 동아대를 비롯해 10개 대학이 뽑혔다.

동아대는 이번 LINC 3.0 사업으로 동아브랜드(BRAND) 기반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산업계 수요 기반 교육과정과 융·복합 교육과정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이 경험과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산학연 공동 연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산학연 기관간 공유·협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산학협력 혁신 생태계 구축 강화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대학 간 공유·협업은 물론 참여대학·비참여대학, 일반대학·전문대학간 산학연 혁신 생태계 구축으로 후발대학 산학협력 지원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박준홍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단장은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미래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융·복합 교육과정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기업가형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산학연 협력과 상생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아대 LINC 3.0 사업단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수소시스템'(30명)과 '바이오헬스규제과학'(29명), '스마트모빌리티'(30명) 등 융합전공도 운영한다.



수험생 입시 부담 완화와 고교교육 내실화 도모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13년 연속 선정

동아대가 교육부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13년 연속 선정,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역 고교·교육청과 공동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대입전형을 공정·투명하게 운영하고 대입 평가에 고교 교육과정을 반영, 학생의 입시 부담 완화와 고교교육 내실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아대는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와 대입전형 단순화 및 정보공개 확대,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사업 운영 및 예산 집행 계획 등을 잘 이행한 대학으로 평가받아 이번 사업에 선정됐다. 이로써 동아대는 오는 2025년 2월까지 국고지원금 11억 3,000여만 원을 포함해 모두 13억 7,000여만 원 규모로 사업을 진행한다.

지난 4월에는 부산시교육청과 고교 교육과정 내실 운영, 고교학점제 역량 신장을 지원하기 위한 '2022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업무 협약'을 맺었다. 동아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 사하구 14개 고교 대상으로 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 컨설팅 프로그램에 참여, 입학사정관이 고교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진로 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강대성 부총장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앞서 교육청-지자체-지역대학들이 선제적으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고교생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시작점이 되겠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동아대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선도기관이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에는 수험생들의 입시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다우림(DAU林) 모의전형'을 실시했다. 영남지역 60개 고교 3학년 재학생 670여 명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참가했으며, 동아대는 이번 프로그램에서 학생부종합전형 특강과 모의 면접, 진로·전공·진학 상담, 학종 컨설팅 등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울산지역 고교생 대상 '찾아가는 다우림(DAU林) 모의전형'을 성황리에 진행했으며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 대표 카페에서 대입전형 안내와 학교생활기록부 1대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동아와 차 한 잔', '동아전공상담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입시부담 완화와 고교교육 내실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2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강대성 동아대 부총장(왼쪽에서 세 번째)



동아대 부민캠퍼스에서 진행된 '다우림 모의전형'

전년 대비 150% 상승, 선정률 40% 이상

과기부·한국연구재단 2022년 상반기 ‘개인기초연구사업’(이공분야) 역대 최다 선정

동아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2년 상반기 ‘개인기초연구사업’(이공분야)에서 역대 최다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이 사업은 대학 이공분야 교원 및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창의성 높은 개인연구를 지원, 우수한 기초연구 능력을 높이고 리더연구자로서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연구역량을 갖춘 신진연구자의 연구기회 확대, 조기 연구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상반기 이공 개인기초연구사업에 선정된 과제는 총 20건으로 지난 2021년 대비 150% 이상 대폭 상승했으며, 과제 선정률은 40.8%에 달한다.

동아대는 ‘중견연구’(12개 과제), ‘우수신진연구’(3개 과제), ‘세종과학펠로우십’(1개 과제), ‘생애초연구’(4개 과제) 등 총 20개 과제(74억 4,300만원)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의학분야와 생명과학분야의 선정과제가 전체의 65%(13과제)를 차지, 의과대학, 간호학부, 생명자원과학대학, 건강과학대학의 약진이 눈길을 끌었다.



승학캠퍼스 뉴턴공원

김성재 산학협력단장은 “역대 최다 과제가 선정된 비결은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값진 성과”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보다 많은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산학협력단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과(부)·학교기업 등 다양한 정부사업 선정

동아대 각 학과와 학교 기업 등이 정부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간호학부는 ‘2022년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선정, 올해 말까지 6억 원의 지원금으로 시뮬레이션 실습 시설 및 장비 구축에 나서고, 정기적인 시뮬레이션 교수법 워크숍 진행과 임상실습 교과목과 연계한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건축학과는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2년 연속 선정, 실무연수비 등으로 8,000만 원을 지원 받는다.

경영정보학과와 의학과, 건강관리학과, 컴퓨터공학과 교수진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2022년 SW전문 인재양성 사업’에 선정돼 ‘디지털스마트 부산 아카데미’에서 ‘디지털금융’과 ‘스마트 헬스케어’ 부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건강관리학과가 포함된 컨소시엄은 ‘2022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에 선정, 운동차방 AI 데이터를 구축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시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밖에 동아대 교수들과 동아대 기술지주회사가 참여해 설립한 혁신신약개발 바이오벤처 (주)알트메디칼(대표 유은희)은 중소벤처기업부 ‘팁스(TIPS)’ 사업에 최종 선정, ‘미토콘드리아 기능개선을 통한 신개념 치매치료후보 물질의 실용화 연구’를 위해 앞으로 2년간 5억 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게 됐다.



‘2022년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선정된 간호학부

발전방향 구성원 공유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동아대가 학교 발전을 위한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최종보고회’를 열고 구성원들과 발전방향을 공유했다. 지난 7월 승학캠퍼스 경동홀에서 열린 보고회에서는 그동안 진행한 구성원 인터뷰 및 대내외 환경 분석 결과 내용을 기반으로 도출된 키워드 및 비전 수립 방향을 공유했으며, 발전계획 수립 컨설팅 및 대내외 환경 및 경쟁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비전체계도 수립 방향을 발표했다.

동아대는 지난 2월 대학 기본역량 진단 분석 결과 등 주요 현안 구성원 공유회를 시작으로 지난 4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학생·교원·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직원 전체가 참여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 구성원 의견이 반영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왔다.



동아글로벌 리더스 12기 취업캠프 모습

6개 과정 모두 ‘우수’ K-Move 미국 해외취업사업 10년 연속 선정

동아대는 ‘K-Move 미국 해외취업사업’에 10년 연속 선정, 올해 모두 4억 6,000여만 원을 지원받아 6개 과정을 운영한다. 동아대는 디자인 전문가과정(1개), 물류무역 전문가과정(1개), 테크니션 전문가과정(2개), 비즈니스 전문가과정(2개) 등 6개 과정 모두 우수 과정으로 선정됐다. 참가 학생들은 약 600시간 동안 영어교육과 직무교육을 받은 후 미국 뉴욕 및 캘리포니아 등 주요 도시에 소재한 대기업·현지 기업에 취업하게 된다.

지난 2013년부터 10년째 미국 해외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오며 해마다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동아대는 그동안 모두 34억 4,000여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 385명의 학생을 미국에 취업시켰다.

정부 부처 및 지자체

사업 주관 및 수행기관 선정

동아대가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 주관 및 수행기관에 선정되며 지역 명문 대학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중소기업 계약학과 주관 대학으로 선정, 기존 ‘산업공학과’(학사과정)와 ‘스마트생산융합시스템공학과’(석사과정)에 이어 ‘학사과정 스마트생산융합시스템공학과’를 추가로 운영한다. 지난 3월에는 환경부로부터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로 지정, ‘부산광역시 환경보건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 밖에도 동아대가 10년째 운영하는 사하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부산광역시 운영성과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센터로 선정,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까지 운영하며 관내 취약계층 식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승호 부산광역시 환경보건센터 사무국장(의과대학 교수), 박한태 의과대학장, 홍영습 부산광역시 환경보건센터장(의과대학 교수), 이근희 부산광역시 녹색환경정책실장, 박영복 부산광역시 기후대기과장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지원 다각화 국제화 사업 활발 추진

동아대가 다양한 국제화 사업을 펼치며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지원 다각화에 노력하고 있다. 먼저 교육부 지정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대학 자격을 내년 2월 28일까지 유지하게 됐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고등교육의 국제적 신뢰도와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화 역량을 갖춘 대학을 교육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동아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전 국가의 유학생 유치기관을 대상으로 'Dong-A Global Honors Center'도 신설, 베트남에서 2호점까지 탄생했다.

'2023~2025년 정부초청외국인(GKS) 수학대학 사업'에도 선정됐다. 이번 사업에서 동아대는 '석박사'와 '학사' 2개 과정 모두 선정됐으며, 최근 이뤄진 '2021년 GKS 수학대학 서면점검' 결과 대학원과정 '우수' 평가를 받았다. GKS 장학사업은 전 세계 우수 유학생 유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남미 등 유학생 유치도 가능해 캠퍼스 국제화에 일조하고 있다.

2022 GKS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에 역대 최다인 20명이 합격, 선발된 점도 눈길을 끈다. 정부초청 장학제도의인 GKS(Global Korea Scholarship)는



베트남 '동아 아너스클럽' 현판식 모습

외국인 학생에게 대한민국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할 기회를 부여, 국제교육 교류 등을 위해 실시되는데 동아대는 올해 GKS 대학원 프로그램에서 전형 을 통과한 20명의 합격자를 배출,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이는 부산지역 최다 합격 인원으로 지난해 12명을 뛰어넘는 수치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들은 캄보디아와 가나,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몽골, 미얀마,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우즈베키스탄 등 13개국 출신이며 학비와 항공료, 생활비, 보험료, 정착지원금 등 유학 전반에 드는 비용이 국비로 지원된다.

레공꺼 베트남 두이탄대학교 이사장 명예경영학박사 학위 수여

동아대는 지난 6월 2일 승학캠퍼스 리인홀에서 베트남 두이탄대학교(이하 '두이탄대') 레공꺼(Lê Công Cơ) 이사장 명예 박사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다. 행사엔 이해우 총장과 레공꺼 이사장을 비롯한 두 대학 관계자 등과 통역을 맡은 도안티엔 니 베트남 유학생회장장과 동아대에 재학 중인 베트남 유학생들도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레공꺼 이사장은 6세에 고아가 된 후 11세부터 베트남 혁명군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 그는 후에(Hue)시 내에서 지식인과 학생-대학생으로 구성된 특공대를 직접 조직해 이끌면서 1975년 3월 25일 후에(Hue)시 전체를 해방시켰다.

1978년부터 1988년까지는 광남-다낭성 베트남 조국 전선위원회 상임부의장을 역임, '지방 선전조'를 창시한 업적으로 광남-다낭성 베트남 조국 전선 위원회로부터 노동훈장을 받았다. 1986년엔 제8대 국회의원, 1989년 광남-다낭 여행사 사장으로 취임, 베트남 최초이자 최대 규모인 푸라마 리조트를 설립하기도 했다. 베트남 국가노동훈장, 국가이등독립훈장, 국가최고항전훈장, 국가신세대를 위한 훈장 등을 받기도 했다.

특히 지난 1992년 교육 사회화를 주장하는 4개 대학 중 하나이자 베트남 중부 최초 사립대학인 두이탄대를 설립, 현재 베트남에서 신뢰받는 대학 중 하나로 성장시켰다.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자녀, 고아, 소수민족 등에게 600억 동(VND, ₩)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베트남 경제와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우 총장, 레공꺼 베트남 두이탄대 이사장, 박상원 대학원장

지자체·공공기관·기업 등과

업무협약 체결, 산학연 협력 적극 나서



협약식에 참석한 동아대와 캄코 관계자들

동아대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기업 등과 다양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산학연 협력의 중심이 되고 있다.

동아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기업 발굴과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두 기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효율적 시행 및 지역인재 육성에 적극 협력한다.

사회과학대학은 캄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공분야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공공분야 혁신을 위한 연구협력 과제 공동 발굴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한다.

대학원은 국가수리과학연구소와 과학기술 발전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연구 및 협력교육, 인력 및 정보 교류, 학연협동과정 운영 등을 추진한다.

LINC 3.0사업단은 ICT분야의 상호발전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 ESG경영을 통한 인재양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KT부산·경남광역본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기업들과의 협약도 활발히 이뤄졌다.

지난 1971년 창립, 국내 최초로 자동차용 시계를 개발한 (주)유니크와 '신재생에너지' 분야 공동연구 및 산학협력, 우수인력 양성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3년 국내 최초로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유럽인증을 받은 영도산업(주)과 글로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 소재 중견 조선기자재 기업인 (주)동화엔텍과의 지역인재 육성 및 산학 공동 발전을 위한 협약 체결도 눈길을 끈다.

국제비즈니스 개발 전문 기업으로 미국과 중국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DS SLK 그룹과의 협약으로는 최초 발효했게 숙취해소음료 '모닝화이팅' 등 동아브랜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주)HME헬스케어와 '스포츠투상 예방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헬스케어 활성화 업무협약(MOU)', 부산시 교육청과 직업계고 학생들의 선취업·후학습 기반 마련을 위한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업무협약, 부산광역시 서구청과 지역상생과 학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 부산광역시 중구청과 '중구청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동아대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업무협약식

위드 코로나 시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다양한 일상 회복



(왼쪽부터) 부민캠퍼스에서 열린 취업설명회 / 부민캠퍼스 다우홀에서 열린 '경영대학 해외파견 준비반 글로벌스 포 비즈' 모집 설명회



‘위드 코로나’에 접어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 캠퍼스에도 일상이 회복되고 있다.

지난 5월 부민캠퍼스에서는 ‘2022 동아대학교 취업설명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코로나19 이후 부산지역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 현장 취업설명회로 큰 관심을 모았다. 설명회에 앞서 ‘인생은 여정이다 갈지(之)자로 가도 괜찮아’라는 주제로 윤선주 ‘짤 컴퍼니’ 대표의 특강도 눈길을 끌었다.

총학생회 주관으로 승학캠퍼스와 부민캠퍼스에서 진행된 ‘캠퍼스 스탬프 투어(Campus Stamp Tour)’도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총학생회를 비롯한 각 단과대학생회는 캠퍼스 내에 이벤트 부스를 설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신입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기도 했다.

동아리 활동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신입 회원 모집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2022학년도 동아리 박람회’도 승학캠퍼스 민주광장에서 펼쳐졌다. 박람회에 27개 동아리가 참여했으며 홍보와 이벤트 게임 활동 등을 진행했다.

경영대학은 영어권 교류대학 해외파견 준비반 ‘글로벌스 포 비즈’ 설명회를 개최하며 국제화를 위한 발걸음을 더 내딛었다. ‘글로벌스 포 비즈’는 ‘교환학생 파견 준비반’과 ‘복수학위 파견 준비반’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2기로 선발되는 학생들은 교재비 및 토플·토익 시험 응시료, 스터디그룹 운영비, 항공료 등을 지원받는다. 이와 더불어 준비반 학생들은 학기와 방학 중 온라인 토플 강의, 외국인 교수의 영어회화 수업 및 교류대학 관계자 등의 국제화 특강 시리즈를 제공받는다.

농촌봉사활동(농활)도 3년 만에 재개됐다. 제55대 ‘동심’ 총학생회(회장 김승범)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농활엔 학생 200여 명이 참가, 경상남도 거창군 12개 마을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직원들의 화합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라는 취지로 2022학년도 직원 연수회도 개최했다. 200여 명의 직원이 참가한 연수회에는 이 총장도 자리해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변호사 시험 및 지역인재 선발
합격자 배출 ‘기염’

(왼쪽부터) 김재은(경제학과 졸), 조세호(도시계획공학과 졸), 서지영(건축공학과 졸)

동아대가 제11회 변호사 시험과 국가직 지역인재 7급 등에서 고무적인 결과를 보였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2022년 제11회 변호사 시험에서 합격자 67명을 배출했다. 11기(2019년 입학생) 입학인원 대비 합격률 53.01%를 기록, 비수도권 소재 로스쿨 중에는 영남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11기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64.71%이다.

동아대 로스쿨은 11기 졸업사정 대상자 전원을 졸업 대상으로 결정,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모두 부여했음에도 이 같은 결과를 얻은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결과로 보고 있다.

2022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선발에서는 합격자 3명을 배출했다. 지난 10년간 해마다 1명씩이었던 것에 비해 늘었으며 합격자는 김재은(일반행정, 경제학과 졸)·서지영(기술, 건축공학과 졸)·조세호(기술, 도시계획공학과 졸) 등문이다.

동아대는 취업지원실에서 운영하는 취업동아리 ‘지역인재 준비반’을 통해 국가직 지역인재 7급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학생들은 전용 스터디룸 제공, 동영상 강의로 지원(단체 수강), 지역인재 합격 선배 멘토링(전년도 합격자 간담회) 등 혜택을 받는다.

강의실 및 도서관 리모델링

첨단교육 구현 및 학습환경 개선 기대



다목적 스마트강의실 구축 결과 발표를 하는 박헌태 건강과학대학장

동아대가 강의실 및 도서관 리모델링으로 첨단교육 구현과 학습환경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혁신전도대학 교육환경 개선 사업의 하나로 다목적 스마트강의실(INSPIRE HALL, 인스파이어 홀)을 구축했다. ‘INSPIRE HALL’은 191석(컴퓨터 수업용 50석, 좌석의자 90석, 간이 의자 51석) 규모로, N-Screen을 기반으로 첨단교육이 가능하도록 조성됐으며 고급 음향시설과 자동녹화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

승학캠퍼스 한림도서관도 2층에서 5층까지 리모델링을 거쳐 새단장, 재개관했다. 2층 로비는 ‘북 갤러리’와 ‘창의공간’, ‘스마트존’ 등 문화생활 공간으로 꾸며졌고 야외정원에서 휴식도 가능하다.

3층 ‘열람실’과 ‘그룹스터디실’은 면학환경 개선과

모바일 좌석배정시스템을 통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고 4층과 5층엔 제1자료실과 사무실, 제2자료실이 각각 배치됐다.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이 강의실 리모델링에 직접 참여, 평범한 강의실을 ‘디자인씽킹’ 공간으로 바꾸기도 했다. 학생들은 도시생활환경 서비스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시공 실무’ 워크숍을 통해 참여했다. 창의적 디자인 활동 수행을 위한 다기능형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한 강의실은 현재 산업디자인학과 교과-비교과 프로그램 및 전시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남영신, 오낭자, 진정무, 이정환
석좌교수 임용



(위, 왼쪽부터) 오낭자 석좌교수, 이해우 총장, 남영신 석좌교수 / (아래, 왼쪽부터) 진정무 석좌교수, 이해우 총장, 이정환 석좌교수

동아대가 각자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인 4명을 석좌교수로 임명했다.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은 기초교양대학, 오낭자 전 명예교수는 현대미술학과, 진정무 전 부산경찰청장은 사회과학대학 경찰·소방학과, 이정환 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경제학과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남 석좌교수는 동아대 ROTC 23기이자 교육학과 81학번으로, 비(非)사관학교 출신 최초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했다. 그는 42년 만에 모교로 복귀, '리더십' 교양강좌를 맡아 전교생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3시간씩 강의한다.

오 석좌교수는 홍익대 동양학과 출신으로 동아대 미술학과 교수를 지내고 올해 여든의 나이에도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1964년부터 1981년까지 국전에서 '특선 4회'와 '입선 11회'라는 진기록을 갖고 있으며 1982년에 국전 추천작가로 임명되기도 했다. 진 석좌교수는 경남경찰청장, 부산경찰청장직을 역임했다. 부산경찰청장 재임 동안 치안 안전망 구축과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 재해·재난 대응역량 강화 등에 힘썼다.

이 석좌교수는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장과 한국거래소 이사장,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오랜 공직 경험으로 금융정책 전반에 전문성과 협상력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아대 석당박물관 기획전 포스터

석당박물관
지역대표 문화 향유 기관 면모 드러내

동아대 석당박물관이 각종 사업 선정 및 평가에서 선전하며 지역대표 문화 향유 기관으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석당박물관은 '2022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 '2022년 매장문화재 미정리 유물 보존 및 활용 사업기관'으로 선정됐다. 석당박물관은 '歡待(환대)-부산과 맺은 인연' 기획전으로 사업비 2,6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매장문화재 미정리 유물 보존 및 활용 사업기관 선정을 통해서는 1987~88년 발굴된 합천댐수몰지역내 유적과 국가귀속문화재 800여 점 이관, 미정리 유물 약 400여 점을 정리할 예정이다.

또 '2022 박물관·미술관 주간' 연계프로그램 '유교뮤진'의 우수참여기관으로 선정,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상을 수상했다. '유교뮤진'은 언택트 시대에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관람객을 위해 해시태그(#)를 타고 박물관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온라인 뮤지엄 여행이다.

굿즈, 비밀, 소리, 자랑 등 7가지 주제로 소장품 보존처리 과정, 김윤겸 필 영남기행화첩 속 태종대 ASMR, 문화상품 50% 할인 이벤트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인 것도 눈길을 끈다. '생생(生生)한 임시수도정부청사 스쿨(나눔 박물관 학교)' 운영을 통해서는 문화소외계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부산 대표 문화재 활용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생생한 임시수도정부청사 스쿨'은 2022년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사업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에서 보낸 데이(Day~)'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부산 서구청이 주최하고 동아대 석당박물관이 운영한다. 특히 '나눔 박물관 학교'는 국가(시) 지정·등록문화재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알리는 문화소외계층(장애인) 대상 방문형 체험교육 콘텐츠다.



'6.1 지방선거 당선자 축하연' 참석자들

박형준 부산시장(명예동문)·
하윤수 부산교육감(법학박사) 등 모두 61명 당선
총동문회 주최 '6.1 지방선거
당선자 축하연' 열려

지난 6월 신정택 동아대 총동문회장 주최로 '6.1 지방선거 당선자 축하연'이 열렸다. 축하연에서 이해우 총장과 신 총동문회장은 당선인들에게 축하패를 전달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동아대 교수를 역임한 박형준(명예동문) 부산광역시장과 하윤수(대학원 법학과) 부산시교육감, 공한수(정치학과) 부산 서구청장, 오태원(대학원 건축공학과) 부산 북구청장, 김진홍(관광경영학과) 부산 동구청장 등 동아

대 동문 모두 61명이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에 당선됐다.

이 총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많은 동문이 당선돼 총장으로서, 동문으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 학교 명예를 드높이고 동아인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동문 당선인 여러분께 뜨거운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회에서 우리 학생들이 지역을 선도하고 대한민국을 이끄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당선인 모두는 자랑스러운 동아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우리 사회를 보다 더 행복하게 만들어 나아가는 주역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각자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여러분의 한결음 한결음에 모교와 동아동문 선후배는 열렬한 후원과 박수를 보낼 것이다"고 말했다.

교수·동문·학생 역량 발휘

동아대 구성원들이 활발한 대외활동과 뛰어난 역량으로 인정받고 있다.

송강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고용노동부의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 근무' 제도와 임금 체계 개편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발족한 단체로 10월까지 운영된다.

오민홍 경제학과 교수는 기술보증기금 상임이사에 임명됐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심사·평가해 금융지원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정부출연 기술금융 전문지원기관이다.

이상진 건축학과 교수는 대한건축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 회장에 취임했다. 이 교수는 후보 3인이 치른 경선을 통해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임기는 오는 2024년 3월까지 2년간이다. 옥수열 시학과 교수는 국립부산과학관 혁신추진 자문위원회에 위촉됐다. 혁신추진 자문단은 부산과학관 전시·교육·문화 등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라광현 경찰·소방학과 교수가 경찰혁신 및 차지경찰 관련 다양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시민인권단 위원으로 위촉됐다. 시민인권단은 수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인권보호 정책자문과 개선안 제시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박민준 정치외교학과 학생(18학번)은 부산시 제3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올해로 3기째를 맞은 청년정책조정위는 앞으로 2년 동안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등 청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산업공학과 87학번이자 학군단(ROTC) 29기 출신인 고현석 소장은 육군 중장으로 진급해 제7기동군단장에 취임했다. 고 중장은 지난해 소장으로 진급하고, 1년 만인 올해 중장으로 진급해 그 역량을 인정받았다.



(왼쪽부터) 오민홍 경제학과 교수 / 고현석 중장

교수들, 정부 표창 등 수상 줄이어

동아대 교수들이 정부 및 각종 기관, 단체에서 연이어 수상했다.

류민호 경영정보학과 교수가 정보통신 기술향상을 통한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장을 받았다. 류 교수는 '공적 디지털 플랫폼'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고,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용희 스마트생산융합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중소기업 인력 양성 등으

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받았다. 최우용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동아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은 최 교수는 지난 2000년부터 모교에서 후학을 기르고 있다.

서권일 식품생명공학과 교수는 지난 27년간 식품 및 생명과학 분야 우수한 논문 200여 편을 국내외에 발표, 생명과학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생명과학회 학술대상'을 수상했다. 서 교수는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2018),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우수 논문상'(2019)을 받기도 했다. 송정근 전자공학과 교수는 '반도체 트랩전하를 활용하여 뉴런의 활동전위 발생을 모방한 뉴리스터 소자의 이론적 고찰'(SD편 58권 11호)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2021년 반도체소사이어티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한성호 대외국제처장은 부산MBC 창사 63주년 기념 감사패를 받았다. 의과대학 교수이자 동아대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한 처장은 라디오 '자갈치 야자매' 등 다수 방송 프로그램에 고정패널로 출연해 시민들에게 코로나19 관련 생활의학정보 등을 전달하며 방송 발전에 기여했다.



(왼쪽부터) 류민호 경영정보학과 교수 / '2022년 한국생명과학회 제64회 정기총회 및 국제학술대회'에서 서권일 식품생명공학과 교수(오른쪽)

교수들, 국내외 연구활동 활발

동아대 교수들이 국내외 논문에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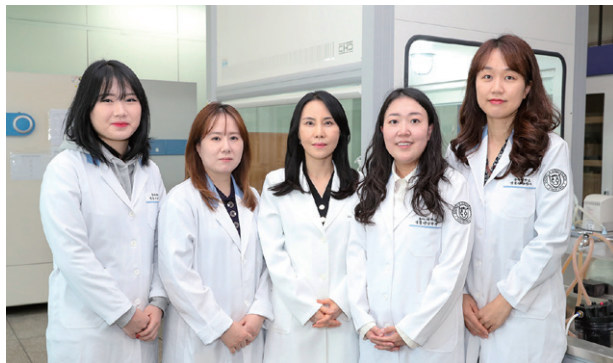
전미라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약리·약학 분야 최상위 국제학술지 'Biomedicine&Pharmacotherapy(생물의학 및 약물치료)'에 교신저자로 3편의 논문을 잇따라 게재했다.

임선희 바이오메디컬학과 교수팀의 논문은 세계적 권위의 의학저널 '랜셋(Lancet)'의 자매지인 '이바이오메디슨(eBioMedicine)' (Impact factor: 8.143) 81호에 게재됐다. 정진웅 바이오메디컬학과 교수팀의 논문은 세계적 권위의 네이처출판그룹(NPG) 'Cell death & disease'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조아라 박사가 제1저자로 참여, 동아대 반도체학과 플라즈마 연구팀과 공동으로 진행했다.

김혁순 바이오메디컬학과 교수와 제주한라병원 알레르기임상면역센터 노건웅 센터장 공동연구팀은 알레르기 임상면역학 분야 세계 최고 권위지인 'Allergy'에 논문을 게재했다. 김 교수가 제1저자, 노 센터장이 교신저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항체-히스타민 복합체' 치료를 받은 만성 두드러기 환자의 71.4%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질환 완화(사실상의 완치) 효과를 확인, 학계에 보고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형열 패션디자인학과 교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과 한국연구재단의 '지역대학우수과학자'에 동시 선정됐다. 지난해 임용된 최 교수는 '4D 프린팅 메타 구조체 기반 스마트 의류용 소프트 액추에이터 연구실'에서도 공동연구자로 활동 중이다.

김경화 건강관리학과 교수가 고든학회 콘퍼런스 'Gordon conference Mitochondria and Chloroplasts'에서 한국 학자로는 유일하게 특강 연사로 초청돼 강연했다. 고든 콘퍼런스는 세계적으로 해당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보유한 100여 명의 학자들만 참석하는 권위 있는 학술대회다.



(왼쪽부터) 이은진 학부생, 이나영 석사연구원, 전미라 식품영양학과 교수, 윤금주 연구교수, 윤정현 박사과정생

대학원생 및 학부생

각종 대회에서 수상 활약

동아대 대학원생과 학부생들이 각종 대회 수상 및 연구과제 선정 등의 활약을 펼쳤다.

동아대 대학원 영유아학과 출신이자 아동학과에서 강의하고 있는 이은주 박사는 '2022년 제4회 한국교원교육학회 신진·예비학자 및 현장교원 논문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논문은 아동학과 학부생 6명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박현태 건강관리학과 교수팀 소속 대학원생 3명은 '한국운동생리학회(KSEP)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 발표상을 받았



(왼쪽부터) 이은주 박사 / 컴퓨터공학과 학생들

다. 진소규 의상섬유학과 박사과정생은 '2022 한국의류산업학회(SFTI) 춘계학술대회'에서 '섬유과학 포스터 부문' 우수논문발표상을 받았다.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은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지역현안해결 대학수업지원 프로젝트'에서 최우수상(부산시장상)을 받았다. BK-21 FOUR(4단계 두뇌한국21)에 참여 중인 화학공학과 연구팀 2팀은 한국어성과과학기술인육성재단의 '2022년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동아대 화학공학과 내에서만 2팀이 선정된 쾌거이며, 선정된 팀은 정유라(분자생물공학실험실지도교수 김준형) 화학공학과 박사과정생팀과 최수미(멀티스케일조직공학연구실지도교수 김수환) 석사과정생팀이다.

동아대 학생 등으로 구성된 부산 대학언론인네트워크는 시사주간지 '시사IN' 주최 대학기자상에서 대상을 받았다. 지난해 결성된 부산 대학언론인네트워크는 동아대학보와 부경대신문기자 공동취재단으로, 동아대학보 박서현 편집국장, 제서현 전 기획취재부장, 박주현 선임기자 등이 참여했다.

스포츠단·운동 동아리

각종 대회 우승 차지

동아대 스포츠단 운동부와 태권도 품새단 및 시범단, 운동 동아리들이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올렸다.

태권도부는 '제49회 전국대학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우승, 개인전 은메달 3개·동메달 3개를 거두고 박상훈 선수(태권도학과 4)는 최우수선수상, 황인하 코치는 지도자상을 받았다. '제52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에서도 남자대학부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저력을 뽐냈다. 태권도부는 금메달 3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로 남자대학부 종합우승과 여자대학부 종합 3위, 이동주 감독은 지도자상을 받았다. 레슬링부는 '제40회 회장기전국레슬링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했다. 금메달 2개와 은메달 7개, 동메달 5개 등 모두 14개의 메달을 따낸 동아대 레슬링부는 최우수선수상(황인종)과 지도자상(이용희 코치)도 가져왔다.

씨름부는 '2022 전국시도대학장사씨름대회' 대학부 단체전 결승에서 울산대를 4대 2로 꺾고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야구부 강민성 선수는 '제77회 전국 대학 야구 선수권대회'에서 사이클링 히트 대기록을 달성했다. 사이클링 히트는 한 선수가 1·2·3루타와 홈런을 한 경기 안에 모두 치는 경우로 대학 야구에서는 역대 25번째 기록이다.

태권도 품새단 학생들은 전국 대회에서 잇따라 단체전 1위를 석권했고, 태권도 시범단은 '제49회 전국대학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에서 팀 경연 1위를 차지했다. 또 태권도 시범단 졸업생 및 재학생 3명은 국가대표 상급 국기원 시범단에 선발됐다.

동아검도회는 '2022년 춘계전국대학검도연맹전' 남자동아리부 단체전 우승, 강진호 학생(건설시스템공학과 2)이 개인전 3위에 올랐다. 교수테니스회는 '제58회 부산교총배 대학교 테니스대회'에서 우승했다. 지난 1970년대 결성된 교수테니스회는 1980년대에 전국교수테니스대회에서 사립대학 최초로 우승을 거두기도 했다.



'2022 전국시도대학장사씨름대회'에서 단체전 우승한 씨름부(대한씨름협회 제공)

INTERVIEW

01

뿌리 같은 가르침을 토대 삼아

<밤이 깔렸다>는 올해로 타계 30주년을 맞은 나림 이병주 선생의 작품 중에서 10편을 선정해 줄거리와 해설, 어록 등을 담아낸 책이다. 이 책을 통해 하 교수는 소설 속에 나타난 뿌리를 깊이 있게 분석해 작품을 보다 풍성하게 읽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심사위원들은 “법과 인문학의 만남을 꾀한 독특한 시도이자 ‘형법학자가 본 이병주 소설의 재발견’으로 문학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고 평가했다.

“1981년 입학해 모교 은사님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가르침이 법학과 문학에서 뿌리이자 기초가 되었습니다.”

하 교수에게 법이란 약자를 위한 것이다.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그 생각으로 매진해 <형사철학과 형사정책>, <형법조문강화>, <의료법>, <생명윤리법>, <공수처법> 등을 펴냈다. 법률문장론 개선과 법의 대중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노발리스는 ‘인간이 된다는 것, 그것이 예술이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번 여행에서 깊이 새긴 문장이기도 합니다. 나림 이병주 선생은 소설 곳곳에 독일 철학자 노발리스 문장을 인용하셨습니다. 인간을 위한 법이라면, 법과 문학은 사촌 아닙니까?”

책을 내기까지 하 교수는 이병주 선생의 작품을 읽고 또 읽었다. 하 교수는 나림 선생이 남긴 문장을 사법부에 대한 분노로 해석하고, 근대 법학의 이론에 정통한 법률 소설가로 평가했다.

“까만 하늘, 반짝이는 별, 중천에 뜬 달, 나림 선생의 작품만 생각했습니다. 왜 이 작품을 남겼을까? 오늘 의미는 무엇일까? 이 생각만 하고 밤길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밤이 깔렸다>입니다.”

하 교수의 대답에서 법은 인권이고 문학도 인권임이 동시에 느껴졌다.

Ha Tae young

운명 같은 모교에서 동아의 영혼을 가꾸는 사람 되길

— 법과대학 81학번

하태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밤이 깔렸다>를 통해
제8회 이병주문학연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하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나림 이병주 문학은 정말
거대한 숲이었습니다. 그 밤길을
무작정 따라 걸었습니다.
그 한 줄기를 찾아 걸었습니다.
법사상입니다.”

100년의 집에서 세계의 인재로

하 교수는 인터뷰를 하면서 수첩을 펼쳐 보았다. 수첩 안에는 필사한 내용과 간단한 기록들이 남아 있었다.

“지금까지 쓴 수첩만 몇 백 권이 됩니다. 정리와 사색을 남길 수 있어 소중한 다릅니다. 매시간 의식의 변화를 확인합니다. 각성(覺性)이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많이 권합니다.”

하 교수는 법과 문학은 물론이고 교육자로서의 삶도 함께하고 있다. 모교에서 보내는 감회를 묻자 차분히 답했다.

“운명입니다. 동아대학교도 운명이고, 독일 유학도 운명입니다. 독일 유학을 마치고 바로 교수가 되었는데 첫발을 동아대에서 내딛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2006년 모교로 다시 돌아왔고 운명의 땅에서 꿈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동아대가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독서-메모-사색’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학문방법론’도 강조했다. 시간을 절약하고 흥미를 유지해 준다고 한다. 다독, 정독-사색도 중요하다. 많이 읽고 정확히 읽고 사색해야 자기 것이 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성장과 가치는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동아대는 좋은 교수진과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학교입니다. 20년이 지나면 100주년입니다. 100년 된 집, 100년의 선배들이 살아온 대학입니다. 세계를 향해 웅비하세요! 그것이 동아의 영혼입니다.”

Park Hyung-jun

동아대에서 내린 뿌리, 부산의 희망이 되다

前 국제전문대학원 국제학과 교수, 명예동문
박형준 부산시장

사회학자에서 시민이 행복한 시장으로

박 시장은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하며 학교 발전과 후진 양성에 기여해 왔다. 그리고 제17대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총장 등을 지내다 지난해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다. 지난 7월엔 재선에도 성공했다. “학자로서 연구하고, 교수로서 가르치는 것은 제 삶의 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아대는 제가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사회학자 박형준의 자리는 내려놓지만 정치 지도자로서의 열정, 약속, 국민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가덕도신공항’ 건설 확정 등으로 도시가 가진 지정학적 잠재력을 살리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물류, 금융허브 도시로 전환을 통해 또 다른 성장축을 만드는 기로에 서 있다. 박 시장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경쟁 PT 연사로 참여했으며, 유치 계획서 제출 이후 더욱 치열한 경쟁을 예상해 남은 경쟁 PT와 현장실사를 통해 지지를 늘릴 계획이다.

“심리학에서 ‘시간을 잘게 나눠 사용하면 천천히 가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재선 후 지금까지도 거의 매일 분 단위로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 직접 체감하는 요즘입니다. 바쁜 일정이지만 대한민국의 강점과 매력을 부각한 만큼 유치 성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INTERVIEW
02

박 시장이 한결같이 꿈꿔온 부산은 시민 한 명, 한 명이 행복한 도시이자 ‘아시아 10대 행복도시’다. 부산이 가진 천혜의 환경을 이용해 대도시의 편익은 누리면서 휴양지처럼 쉬고 즐길 수 있는 ‘워케이션(Work+Vacation)’의 매력을 극대화한다면 박 시장의 목표는 부산을 받칠 단단한 기반이자 희망이 될 것이다.

창조적인 도전으로 부산의 발전에 함께하길

부산은 가능성과 잠재력이 뛰어난 대한민국 제2의 도시다. 하지만 청년이 떠나고 산업이 침체되며 다소 어두웠던 시기도 있었다. 지난해에는 부산의 생산 가능한 청년인구 가운데 구직 단념자가 많아 청년들이 만족할 만한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시각도 있었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꿈을 이루는 도시로 개선했다 산학협력 혁신 생태계 조성’을 본격화 했습니다. 다행히 취임 후 부산의 잠재력을 알아보는 기업이 늘어 기업 투자가 10배 이상 늘었어요. 좋은 일자리를 가진 기업이 역량 있는 인재를 만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경제구조가 코로나19를 비롯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게 다각적인 방안도 추진 중이다. 새로운 산업 육성과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며 올해 국내외 글로벌 기업 50개사 유치도 목표로 하고 있다. 젊은 인재와 스타트업 기업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게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30년 동안 동아대 학생들과 동고동락하며 청년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꿈꾸는지 지켜봐 왔어요.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더 크겠지만 자신이 원하고 좋아하는 일에 과감하게 도전하길 바랍니다. 저도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도전할 수 있게 무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박 시장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조적인 도전이 더 중요한 시대라고 덧붙이며 동아대 학생들이 용기 있는 도전을 통해 스스로 큰 발전을 이뤄내길 바란다고 했다. 또 1946년 개교 이래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사학으로 앞으로도 부산의 균형 발전에 함께하길 당부했다.

막중한 책임감에도 부산시민의 지지와 열망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박 시장의 발걸음에 동아대도 뜨거운 응원과 지지를 보낸다.

박형준 부산시장
지난 30년간 몸담았던
동아대를 떠나 부산의 발전과
새로운 시작을 위해 도약하고 있다.
이에 부산은 ‘미래가 있는 도시다’라는
외부의 긍정적인 시선을 끌어내며
청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는 중이다.



Bae Jong beom

배종범 회계사는 모교에서 다전 토대로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교수님들의 생생한 사례가 더해진 수업은
'회계사'라는 직업으로 이끌었고,
동기들과 함께 공부한 기억은
단단한 경험이 되었다.



INTERVIEW 03

동문들과 함께 일할 날을 기대하며

경영학과 14학번
배종범 회계사(한영회계법인)

경영학과 14학번인 배 회계사는 재학 중 CPA 시험을 통과하고 한영회계법인에 입사했다. 첫 출근을 앞둔 배 회계사는 친구들을 만나 회포를 풀고 집에서 쉬기도 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회계 과목과 교수님들이 들려주신 생생한 사례가 재미있어 회계사가 되기로 결심한 그는 회계의 기초인 감사 업무를 중요하게 여겨 감사부에 지원했다.

배 회계사는 ““되돌아보면 수험기간도 추억”이라는 남들의 합격 수기에 공감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공감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동기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서로 응원하며 열정을 불태운 강렬한 경험”이었다는 것 그는 “함께 공부하며 문제 풀이 ‘과정’에 관한 의견을 나눈 덕에 올해 유독 어려웠던 재무관리 주관식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또한 동아대에도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계산기 소음 때문에 일반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경영학과 고시반인 ‘동현재’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리, 1차 시험 합격 이후 주어지는 지원금은 실질적 든든함 그 자체였다고.

이제 그는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 회계법인 ‘파트너(회계법인 직급으로 이사급에 해당)’가 되고 싶다고 한다. 그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함’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일이 있다면 지금 최선을 다해 고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업무 철학을 밝혔다.

배 회계사는 “나는 초시, 동차 합격이 아니라 재시, 유예 합격을 했습니다. 어렵지만 못 붙을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꿈이 있다면 언젠가는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고, 같이 일할 날을 기대하고 있어요”라고 동문, 후배들에게 말했다.

Kim Dae young

성공과 정의로움을 함께 두고 사회로
첫걸음을 내딛는 동아의 인재가 있다.
김대영 검사는 로스쿨에서의 형법 수업을
계기로 감사의 길을 걸으며 ‘공정’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 오늘도 가치 있는
‘실력’을 쌓고 있다.

INTERVIEW 04

모두가 누리는 공정함을 향해 가다

석당인재학부 11학번
김대영 검사(울산지방검찰청)

김 검사는 석당인재학부에서 배출한 두 번째 검사이며 현재 법무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그는 바쁘고 정신이 없었던 검사 임용시험 준비 과정 동안 가족들의 응원과 로스쿨 동기인 아내와 함께 공부한 일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다만 그때 운동을 좀 더 했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석당인재학부 졸업 이후 시간이 지났고 검사로서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도 김 검사는 석당인재학부를 “2기 입학생이라 불안함이 있었지만 다 함께 힘내서 헤쳐 나간 곳”이라고 추억했다. 대학생으로서의 기본적인 학문 소양을 길러주고 학교·학과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이동규 기업재난관리학과 교수, 함께 수업을 듣고 어울리면서 돈독한 사이로 발전한 학과 친구들,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 석당인재학부의 장학지원제도를 차례로 손꼽는 김 검사에게서 자부심이 엿보였다.

로스쿨에서 들은 형법 수업이 매력적으로 느껴져 검사가 되기로 결심한 그는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 초임 검사로서 ‘공정’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 ‘실력’을 먼저 기르고 싶다”고 앞으로의 목표와 지향하는 가치를 밝혔다. 실력이 있어야 어려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부연하고 “건강관리를 잘해서 직업과 가정을 오래 유지하고 싶다”는 평범한 소망도 내보였다.

김 검사는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후배들이 있다면 다른 고민을 하지 말고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믿고 꾸준하게 실천해 나가면 좋겠다”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석당인재학부 1기 선배 중에서 먼저 검사가 된 선배가 있어 마음을 놓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그가 앞으로 동아대 후배들에게 믿음직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DONATION NEWS

윤대원 (주)원봉 대표
학교 발전기금 2억 원 쾌척

윤대원 (주)원봉 대표(금속공학과 73학번)가 모교인 동아대학교에 발전기금 2억 원을 쾌척했다. 이로써 윤 대표가 학교 발전기금과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공과대학 발전기금 등으로 기부한 금액은 2억 2,600만 원에 달한다. 올해 제56회 납세자의 날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기도 한 윤 대표는 전달식에서 “모교인 동아대와 동아대병원에서 사업 기틀을 다져 전국으로 확장할 수 있었다”며 “모교에 보답하고 후배들을 위한 마음으로 발전기금을 기부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한성호 대외국제처장, 윤대원 (주)원봉 대표, 이해우 총장, 하광봉 사무처장

박동진 AMP 제49대 총동문회장
경영대학원 발전기금 2,000만 원 기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 제49대 총동문회장에 취임한 박동진 회장(54기)이 경영대학원 발전기금 2,000만 원을 기부했다. 박 회장은 취임사에서 “선배들이 닦아놓은 훌륭한 업적을 계승하고 신뢰와 상부상조 정신으로 동문회 활성화와 단합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장군 정관에 위치한 건축석재 시공 전문기업 (주)대동석재를 운영 중인 박 대표는 지난해 12월, 경영대학 발전과 교육혁신을 위한 발전기금 릴레이 47호 주자로 1,0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왼쪽부터) 박동진 AMP 제49대 동문회장, 이해우 총장

명예박사회
학교 발전기금 5,000만 원 기부

동아대 명예박사 학위 수위자 30여 명으로 구성된 명예박사회가 학교 발전기금 5,000만 원을 기부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남해 망운사 주지 성각스님(인간무형문화재)이 회장을, 김정순 (주)한국담수토부 대표이사가 총무를 맡고 있는 명예박사회는 “앞으로 모교를 사랑하는 후배들이 많이 생기면 더 큰 보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해우 총장은 “명예박사회 활성화를 위해 자주 교류하고, 발전기금 기부자 분들을 모두 모셔서 보답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한성호 대외국제처장, 박필룡 전 동아학숙 이사장, 이해우 총장, 성각스님, 김정순 (주)한국담수토부 대표이사, 엄기섭 한진물산(주) 대표이사, 박상원 대학원장

김길환·박정임·김홍덕·임태영 동문
경영대학원 발전기금 2,000만 원 기부

경영대학원 석사(MBA) 총동문회 제25회 정기총회가 지난 4월 29일 부산 농심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정석봉 (주)참고청하 대표이사(44기)가 제26대 MBA 총동문회장으로 취임했으며, ‘자랑스러운 경영인상’을 받은 김길환 동양인터넷(주) 대표이사(46기)와 박정임 (주)삼성이앤지 대표이사(47기), ‘자랑스러운 동문인상’을 수상한 김홍덕 한라정밀 대표이사(53기)와 임태영 (주)태영전기 대표이사(53기)가 경영대학원 발전기금 2,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해우 총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정석봉 MBA총동문회장(왼쪽에서 네 번째), 기부자들

박상인 삼지무역(주) 대표
경영대학 발전기금 릴레이 48호 기부

박상인 삼지무역(주) 대표가 경영대학 발전과 다우리스트 기프트(DAUist Gift) 고액 릴레이 기부 제48호 주자로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지난 3월 동아대 경영대학원 석사과정(MBA)에 입학해 56기 원우회장을 맡고 있는 박 대표는 부산 강서구 생곡산단에서 ABS·PC·ABS도금·EPS 등 플라스틱 및 스티로폼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다. 박 대표는 “학생들이 비전과 끈기를 갖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매진하고, 기부금이 경영대 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현준 경영대학장, 박상인 삼지무역(주) 대표, 한성호 대외국제처장

최인열 나래가구 대표
경영대학 발전기금 릴레이 52호 기부

최인열 나래가구 대표가 다우리스트 기프트 고액 릴레이 기부 제52호 주자로 1,000만 원을 기부했다. 경영대학원 AMP 56기로 입학한 최 대표는 현재 원우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사무용가구를 전문으로 하는 나래가구를 운영하고 있다. 최 대표는 “좋은 기회를 통해 학교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어 행복하다”며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경험으로 삼으면 결국 성공이 찾아온다고 학생들에게 조언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최인열 나래가구 대표, 김현준 경영대학장

임창섭 (주)동신 대표
경영대학 발전기금 릴레이 51호 기부

임창섭 (주)동신 대표가 경영대학 발전과 교육혁신을 위한 다우리스트 기프트 고액 릴레이 기부 제51호 주자로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임 대표는 경영학과(85학번)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 워싱턴대학교 MBA를 마친 후, 경영대학원 AMP 56기로 입학해 현재 원우회장을 맡고 있다. 임 대표는 “학부 재학 시절 응원단 활동도 하는 등 지역 최고 명문사학인 모교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다”며 “후배들이 동아인으로서 긍지와 애착을 갖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현준 경영대학장, 임창섭 (주)동신 대표, 한성호 대외국제처장

강형희 AMP 56기 대외협력부회장
경영대학 발전기금 릴레이 53호 기부

강형희 AMP 56기 대외협력부회장이 다우리스트 기프트 고액 릴레이 기부 제53호 주자로 1,000만 원을 기부했다. 대학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한 강형희 부회장은 지난 4월 최고경영자과정에 입학했으며, 현재 대외협력 부회장을 맡아 56기 원우회를 이끌고 있다. 또한 (주)아트만의 투자자 겸 재경이사로 재직하며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왔다. 강 부회장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왼쪽부터) 강형희 AMP 56기 대외협력부회장, 김현준 경영대학장

DONATION NEWS

이동대 교수 및 제자 일동
경영대학 발전기금 릴레이 54호 기부

이동대 경영학과 교수와 제자들이 다우이스트 기프트 고액 릴레이 기부 제 54호 주자로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 교수와 제자들은 13년 전부터 '동아대학교 이동대 교수와 그 제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D. D. Family'라는 연구 모임을 만들어 학회 활동과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 이 교수는 "박사 제자들과 학회 활동을 하면서 학문의 동반자라는 의식이 생겼고, 은퇴를 맞이해 의미 있는 일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MZ세대가 사회에 편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동대 교수(왼쪽에서 다섯 번째)와 'D. D. Family' 제자들, 김현준 경영대학장(왼쪽에서 여섯 번째)

경영대학 고액릴레이 기부자 모임 'D-Chamber'
2022년 정기총회 개최, 한호종 제5대 회장 연임

고액릴레이 기부자 모임인 'D-Chamber(디챔버)' 정기총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 7월 부산 서면 롯데호텔 아스토룸에서 열린 행사에는 김현준 경영대학장, 한성호 대외국제처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와 역대 기부자들이 참석했다. 디챔버 제5대 회장에 연임된 한호종 회장은 "발전기금 기부자들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동아대 경영대학 발전과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영대학 고액릴레이 기부자 모임 '디챔버' 정기총회 참석자들

경영대학 고액릴레이 기부자
'제2의 명예의 전당 제막식' 개최

경영대학의 발전과 교육 혁신을 위한 발전기금 릴레이 기부 '제2의 명예의 전당(DAUism Hall of Fame) 제막식'이 개최됐다. 지난 6월 부민캠퍼스 종합강의동 로비에서 열린 행사엔 이 총장과 김 학장을 비롯해 역대 기부자들, 제2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오른 임창섭(51호)·최인열(52호) 기부자도 함께 자리했다. 제2의 명예의 전당엔 다우이스트 기프트 발전기금 릴레이 기부 51호 주자부터 100호 주자까지의 이름이 올라갈 예정이다.



'제2의 명예의 전당' 제막식 참석자들

동아대 위탁교육기관협의회
아동학과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동아대 위탁교육기관협의회가 아동학과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동아대 위탁교육기관협의회는 아동학과 전공학문의 현장 적응과 사회 기여를 위해 운영되는 어린이집 등 아동교육기관이다. 발전기금 기부엔 부산사하경찰서어린이집, 녹산산단바른어린이집, 풀잎어린이집, 롯데캐슬스타어린이집, 하늘어린이집, 명지더샵2단지어린이집, 부산서부지원어린이집, 명지더샵3단지어린이집, 강서다온어린이집 등 9개 기관이 참여했다.



(왼쪽부터) 전효정 인문과학대학장(아동학과 교수), 이해우 총장, 강진숙 위탁교육기관협의회장(부산사하경찰서어린이집 원장), 한성호 대외국제처장

강민성·김도하 태권도 선수
태권도학과 발전기금 1,500만 원 기부

강민성(태권도학과 4)·김도하 선수(태권도학과 졸업)가 모교 후배들을 위해 발전기금 1,500만 원을 기부했다. 그동안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김운용컵 국제오픈 태권도대회 등에서 입상한 강 선수와 김 선수는 각각 강화군청 태권도팀과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에 입단해 활약하고 있다. 지난 1975년 창설한 태권도부는 김제경(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문대성(2004년 아테네 올림픽, 금)·김태훈(2016년 리우 올림픽, 동) 등 국제 대회 메달리스트를 다수 배출했다.



(왼쪽부터) 한성호 대외국제처장, 김도하 선수, 이해우 총장, 우진희 스포츠단장(예술체육대학장)

서재규 스미스필라테스&피티 대표
체육학과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서재규 스미스필라테스&피티 대표가 모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체육학과 08학번인 서 대표는 지난 2018년 부산 정관 1호점을 시작으로 센텀시티, 기장, 양산에서 PT숍을 운영하며 개인·단체레슨을 하고 있다. 서 대표는 "체육학과 피트니스 관련 교육과 학교기업 '동아기능성운동트레이닝센터'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싶고, 후배들이 전공을 살려 사회의 빛이 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전형필 체육학과장, 서재규 스미스필라테스&피티 대표, 한성호 대외국제처장

태권도부 박순달 학부모
태권도학과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태권도부 출신 박진영 선수의 부친 박순달 씨가 태권도학과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지난 2월 졸업한 박진영 선수는 울산광역시체육회 태권도팀에 입단해 활약하고 있으며, 부친인 박순달 씨는 현재 부산광역시청 물류정책과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전달식에서 박순달 씨는 "아들을 비롯한 선수들이 재학 시절 선배들과 학교의 도움을 받아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후배들을 위해 다시 기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이용국 태권도학과장, 이해우 총장, 박순달 학부모, 우진희 스포츠단장(예술체육대학장), 이상호 태권도학과 교수

윤영섭 국제밸브 대표
정치외교학과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정치외교학과 동문인 윤영섭 국제밸브 대표가 학과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윤 대표가 운영하는 국제밸브는 지난 20여 년 동안 양질의 밸브와 피팅류, 배관부속 등을 판매하는 제조·도매 전문 업체로 큰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을 듣고 있다. 전달식에서 윤 대표는 "후배들에게 내리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 학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물심양면으로 더 지원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왼쪽부터) 박병철 아정장학회 사무국장, 이현경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영섭 국제밸브 대표, 이다윗 박사(원우회 부회장), 주인석 교수

DONATION NEWS



ROTC 동문 장학회 창립총회 개최

ROTC(학군단)가 '제117 ROTC 장학회 창립총회'를 열었다. ROTC 동문회는 후보생 장학금 지원을 위해 장학위원회를 설립, 동문들의 십시일반으로 현재 1억 3,000여 만 원의 장학기금을 모았다. 동문회는 이번 장학회 설립을 시작으로 동아대 학군단(제117 ROTC)을 의미하는 장학금 117만 원을 해마다 2회씩 매회 4~6명에게 수여하기로 했다. 동아대 ROTC 동문회는 앞으로 장학위원회를 재단으로 발전시키고 후보생 장학 혜택도 확대할 계획이다.



‘제117 ROTC 장학회 창립총회’ 참석자들

11개 동아리, 1700여 명 학생 활동 제9기 동아 재능기부봉사단 임명장 수여식 개최

지난 5월 승학캠퍼스 경동홀에서 '동아 재능기부봉사단'이 9기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하나로 운영되는 제9기 동아 재능기부봉사단은 11개 동아리 1700여 명으로 구성됐고 내년 2월까지 10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동아 재능기부봉사단은 지난 2014년 전국 대학 최초 동아리 중심의 봉사단으로 발족해 지역 소외계층 멘토링 활동과 행사 응원 및 공연, 전시, 체험교육, 노후 전구 및 콘센트 교체, 헌혈 릴레이 활동 등을 펼쳐오고 있다.



‘2022학년도 동아 재능기부봉사단 9기 발대식’ 참석자들

이상용 뉴질랜드 동문회 회장 모교 방문, 1957년도 졸업장 기증

이상용 뉴질랜드 동문회 회장이 모교를 방문, 1957년도 졸업장을 기증했다. 기증한 졸업장은 뉴질랜드 동문회 초대 회장이었던故백남도 전 진주농림전문대학 교수(동아대 수학과 졸업)의 졸업장이다. 졸업장은 교사 자료로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해 구덕캠퍼스 석당기념관 2층 '동아대학교 역사기록관'에 보존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귀한 자료를 모교에 기증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모교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발전하는 동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한성호 대외국제처장, 이상용 뉴질랜드 동문회 회장

유영호 (주)네오메드 대표이사 미식축구부 '레오파즈'에 기능성 관절보호대 390개 기부

유영호 (주)네오메드 대표이사가 동아대 미식축구부 '레오파즈'에 400만 원 상당의 기능성 관절보호대 390개를 기부했다. (주)네오메드는 '국가대표 네오메드 마스크KF94'를 비롯 관절·허리·발목·팔꿈치 보호대, 테이핑 용품, 스마트젤, 스포츠 용품 등을 취급하는 R&D전문기업이다. 동아대 AMP 52기 동문이기도 한 유 대표는 “동아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됐다”며 “후배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기부자와 후원자가 더 많이 생겨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성재현 미식축구부 OB회 회장, 유영호 (주)네오메드 대표이사, 이수민 미식축구부 주장(식품영양학과 3)

기부로 밝아지는 동아대학교의 미래

지난 시간 동아대는 교육을 혁신하고
인재양성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동아의 미래 발전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이란

동아대학교 발전과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의 발전기금을 후원해주는 모범업소를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으로 선정합니다.

가입대상 동아대학교를 사랑하고 발전을 기원하는 모든 업소 및 사업체

가입 시 혜택

- 후원의 집 명판 부착
- 매년 명절 쌀·감 등 소정의 기념품 발송
- 기부금 영수증 발급
- 동아대학교 달력 및 소식지 발송



발전기금 기부현황 (2022년 1월~2022년 6월)

단체			
(재)BNK금융그룹희망나눔재단	(주)태영전기	동양인터넷(주)	수근종합건설(주)
(사)동아비즈니스포럼	(주)태영지엔티	디엘건설주식회사	신일테크
(주)HKM	(주)팻팔문화원	리우개발 주식회사	안나닷컴
(주)건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헬스원	미래넷	우일힐타
(주)대동	KMC부산	법률사무소 규리	우진샷다금속
(주)동신	OK건설	법률사무소 이안	윤석중법률사무소
(주)메디파워	가람카크리닉	법률사무소 JK	은하수합동법률사무소
(주)메종건축사사무소	거제리 명가	법무법인 예인	인사이트 법률사무소
(주)미꾸미	경안특수목재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경학과 재경동문회
(주)비에프씨씨	국제밸브	법무법인성현	주식회사 새틀투어
(주)신도시엔지니어링	금융학과 재경동문회	변호사 김병현 법률사무소	주식회사 유통닷컴
(주)알앤에이치플랜비	김태현변호사법률사무소	변호사 박대웅 법률사무소	주식회사 자인
(주)에듀피플스	김해 장유 작심스페이스	변호사 주현빈 법률사무소	주식회사비티엑스모빌리티
(주)원봉	(주)네오메드	비케이메탈	한라정밀
(주)유디엠	대교종합화물	산업공학과	해양자원연구소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엔지	덕천필피부과의원	삼지무역(주)	화동수산
(주)지앤지코퍼레이션	동아대학교 명예박사회	서호엔지니어링(주)	황기호정형외과의원
(주)지엔시	동아대학교뉴질랜드동문회	성원타공(주)	

후원의 집

성일숯갈비	카플러스	이가한우	거양꽃농원
동경초밥	(주)올복스	송이아구찜	진선
상록광고기획	송월타울	대물림 청송집	동원장수촌
흥부가	아이시티인과의원	화국반점	장시영살롱드뷰티
어심초밥	선미집	영의루	소담
금호횡집	투썸플레이스동아대점	대궁삼계탕	콩볼 동아대점
초원복국	파리바게뜨부민점	하단돼지국밥	본가사하점
초유플라워	누리마을	더진국하단점	플로르델리아
대훈기획	산정	(주)엠컴퓨터아카데미	강남스마일안과의원
밝은눈안과의원	도리원	이모식당	



함께해 주신 분들

개인

강금순	강태윤	권영삼	김남균	김민하	김수민	김은주	김지연	김현준	노강민	민현선	박성범	박종훈	배길석	서정미	손현태	신윤호
강기수	강태홍	권영성	김남수	김민형	김수연	김은진	김지영	김현준	노경혜	민혜숙	박성빈	박주상	배도정	서정우	손형수	신재봉
강나현	강하승	권영준	김남영	김민희	김수자	김은혜	김지은	김현중	노기호	박건우	박성일	박주현	배동고	서정택	손홍락	신재욱
강남옥	강항모	권영철	김남희	김범수	김수정	김의도	김지현	김현진	노명환	박경렬	박성제	박준석	배병욱	서정화	송강직	신정현
강다연	강형희	권영택	김노훈	김범지	김수진	김인자	김지혜	김형기	노상우	박경록	박성지	박준혁	배성환	서주환	송대성	신정환
강대복	강혜진	권오구	김달호	김병권	김 숙	김일영	김진경	김형록	노수진	박경만	박세영	박준형	배우나	서준희	송명근	신중섭
강대성	강호길	권오근	김대경	김병립	김순돌	김재광	김진길	김형빈	노연정	박경미	박세준	박준호	배종화	서준혁	송모란	신지용
강동만	계민수	권우정	김대륙	김병수	김순진	김재연	김진석	김형수	노영숙	박경식	박소연	박준홍	배주용	서추연	송민정	신지윤
강동윤	고도란	권주영	김대영	김병조	김승우	김재환	김진수	김형수	노영훈	박경애	박수천	박지연	배지영	서현권	송성훈	신창엽
강동일	고상만	권중오	김대욱	김병준	김승일	김재혁	김진아	김형진	노옥희	박경우	박수철	박지용	배진경	서현준	송시영	신현범
강동현	고상석	권태정	김대웅	김병찬	김승태	김재현	김진용	김형철	노주섭	박경원	박수호	박지은	배한숙	서화영	송유진	신호국
강동훈	고성광	권한용	김대준	김병채	김승호	김재홍	김진욱	김혜경	노창현	박경환	박순달	박지혜	배형우	석경숙	송은화	신호민
강래욱	고성원	권현규	김대중	김보경	김승희	김정수	김진웅	김혜란	노춘근	박광원	박순영	박지현	백건희	석민서	송정량	신희기
강명자	고수현	권형준	김대진	김보림	김시동	김정근	김진원	김혜숙	노해성	박광춘	박순우	박지혜	백경민	선정애	송주명	신희진
강명지	고여경	권혜민	김대현	김보람	김아영	김정규	김진원	김혜숙	노현숙	박광희	박성중	박지희	백경숙	설영진	송진영	심미화
강명호	고영남	권호철	김대환	김보배	김애희	김정대	김진홍	김혜정	노현욱	박규환	박시윤	박진익	백경원	설형수	송창호	심부자
강문성	고영라	권희진	김덕현	김보연	김양곤	김정득	김진호	김혜진	노희관	박기상	박신향	박진영	백동원	성기근	송창희	심성희
강민경	고유석	기성훈	김도경	김보준	김양이	김정미	김진후	김호룡	노규완	박기현	박연주	박진홍	백상훈	성기진	송형기	심영규
강민구	고윤성	김가은	김도하	김복남	김연국	김정민	김진희	김홍경	도동오	박년쿨	박영란	박차원	백승우	성낙균	송훈춘	심재후
강민성	고윤준	김건욱	김도한	김복수	김영권	김정석	김찬희	김홍일	도선영	박달해	박영일	박찬규	백영기	성낙용	송희은	심형열
강민재	공경란	김건우	김도훈	김봉진	김영근	김정선	김창석	김 환	도영화	박동민	박영태	박찬민	백종국	성낙창	신경미	안경순
강민지	공미정	김영민	김동섭	김부종	김영미	김정아	김창호	김현봉	라광현	박명숙	박영후	박창구	백자승	성병찬	신경아	안기범
강병기	공병민	김경배	김동수	김성림	김영민	김정환	김창완	김현보	류관호	박미경	박용선	박창범	백희자	신경탁	안길용	
강봉순	공외연	김경숙	김동연	김상열	김영선	김정호	김창준	김효성	류단비	박미나	박용성	박창석	변경도	성세환	신경호	안나현
강상모	공윤경	김경우	김동우	김상엽	김영우	김정화	김창환	김효준	류미향	박미란	박유영	박창수	변상민	성수현	신계현	안목련
강상훈	공혜경	김경태	김동준	김상준	김영일	김정훈	김창훈	김 훈	류민호	박미옥	박유진	박창순	변선영	성이용	신기욱	안미혜
강석우	공희원	김경화	김동진	김상진	김영준	김정희	김창희	김희경	류순식	박미정	박윤경	박창열	변성우	성재희	신대용	안새봄
강성원	광광우	김관필	김동환	김상태	김영진	김종국	김채수	김희돈	류승훈	박미향	박윤호	박창호	변성지	성지현	신미경	안성률
강성윤	광갈수	김관란	김동훈	김상현	김영하	김종렬	김철권	김희선	류용호	박미혜	박용호	박채우	변성철	성홍재	신 민	안승광
강성진	광도훈	김광열	김동철	김상호	김영호	김종묵	김철현	김희정	류유아	박민성	박은경	박철현	변성호	송경석	신민정	안시정
강수진	광명서	김 구	김두진	김 석	김영환	김종민	김충연	김희준	류은영	박민성	박은국	박철홍	변영철	송광석	신봉준	안영주
강영조	광미진	김구연	김만재	김석지	김영훈	김종식	김태근	나 웅	류윤희	박민수	박은정	박춘래	변종석	손민근	신봉준	안원석
강용진	광선화	김권호	김명기	김석현	김예주	김종욱	김태석	나진숙	류인동	박병권	박은주	박태위	변행석	손병구	신부삼	안일선
강원배	광은희	김규리	김명범	김선규	김오연	김종운	김태수	남경문	류지희	박병규	박인식	박한술	사정훈	손상현	신상문	안정수
강원호	광형린	김규범	김명수	김선미	김옥란	김종혁	김태완	남광호	맹수연	박병형	박일근	박한신	서광민	손석주	신상열	안정화
강은미	구강인	김규준	김명숙	김선익	김완중	김종훈	김태우	남덕우	문건주	박복자	박장식	박해일	서금홍	손세영	신상용	안주현
강은혜	구관희	김규한	김명중	김성기	김용기	김주연	김태원	남명구	문병진	박봉경	박재균	박해지	서대관	손수범	신상원	안중기
강이래	구중환	김근민	김명주	김성동	김용준	김주영	김태철	남보현	문상진	박봉철	박재민	박현우	서동균	손재홍	신상의	안태형
강재신	권기향	김근우	김문범	김성렬	김우남	김주오	김태훈	남상돌	문선영	박상권	박재우	박현주	서미옥	손정순	신상욱	안혜령
강정호	권대성	김기률	김미란	김성목	김우현	김주찬	김태희	남상설	문성병	박상석	박재진	박현지	서상국	손정우	신성현	안효성
강정화	권동식	김기수	김민경	김성자	김원재	김준석	김판석	남승덕	문영주	박상아	박정국	박현태	서석준	손정환	신성호	안효익
강정희	권영수	김기영	김민규	김성재	김위근	김준우	김 평	남승현	문요한	박상욱	박정영	박형태	서성구	손종윤	신숙영	양건석
강종훈	권민지	김기원	김민석	김성진	김윤경	김준찬	김하나	남윤성	문진호	박상원	박정임	박홍준	서성환	손진규	신승욱	양동춘
강주용	권병욱	김기중	김민수	김성태	김윤정	김종완	김창이	남은희	문찬혁	박상혁	박종귀	박환식	서승원	손창현	신영아	양미경
강준원	권성길	김길성	김민영	김성현	김윤진	김지건	김창이	남재성	문철주	박상현	박종민	박효민	서신애	손태중	신영완	양미자
강지연	권순일	김길조	김민원	김세훈	김윤희	김지나	김 현	남지연	문필성	박상훈	박종봉	박희태	서양숙	손판도	신용상	양상섭
강지현	권영근	김나람	김민정	김소란	김윤희	김지만	김현미	남찬섭	문혜신	박서준	박종선	반성욱	서영호	손현준	신용우	양석동
강지혜	권영근	김나현	김민주	김소현	김은경	김지상	김현수	남창우	문환웅	박석강	박종윤	반한용	서용진	손현지	신용택	양신우
강진숙	권영근	김남국	김민철	김소형	김은영	김지숙	김현우	남현정	민영기	박석주	박종현	방대중	서우석	손현진	신용호	양재호

앞으로도 동아대는 역사와 전통 그리고 동아인들의 헌신을
가슴에 품고 더 밝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개인

양주순	왕승민	윤성환	이남경	이상진	이웅건	이종철	이혜민	장소라	정두화	정재현	조병준	진주한	최신애	최홍조	허미나	황서목
양준위	왕성준	윤세련	이노성	이서윤	이원구	이종학	이혜숙	장소영	정득현	정종혁	조봉현	진태훈	최애은	최희선	허성란	황선영
양지훈	우미양	윤아영	이대명	이서정	이원빈	이종호	이혜원	장승권	정명철	정종화	조상호	차경천	최영숙	최희원	허성우	황성모
양혜리	우연주	윤영준	이대성	이석봉	이원호	이종화	이호산나	장시영	정무섭	정종희	조서백	차동환	최영옥	최영익	허수민	황성원
양홍호	우은정	윤원용	이대승	이석용	이원희	이주연	이호재	장옥정	정미숙	정종식	조석봉	차병철	최영익	최영일	허영민	황영식
엄범섭	우진희	윤은기	이도관	이선우	이윤한	이주영	이호정	장윤창	정미영	정지분	조상식	차서현	최영주	추지혜	허영호	황영정
엄윤수	원동화	윤은주	이도현	이선주	이은남	이주용	이호진	장정표	정 민	정진아	조소희	차영수	최영주	탁규만	허우린	황영현
에버인	원창선	윤인식	이도환	이선하	이은숙	이주현	이호철	장정환	정민석	정진영	조아라	차윤석	최영진	탁규만	허우린	황영현
데이비스	위순선	윤인한	이동대	이선희	이은영	이준숙	이호균	장준봉	정민준	정진영	조애진	차윤숙	최영호	피찬훈	허재복	황영희
여세비	유경규	윤재준	이동명	이상구	이은임	이준승	이호중	장준오	정민호	정진웅	조양홍	차재용	최영환	하교은	허 정	황옥연
여승현	유경택	윤정웅	이동민	이상민	이은정	이준호	이흥재	장지현	정병수	정진희	조연원	차재윤	최용수	하광봉	허지현	황원주
여준호	유길준	윤정환	이동본	이상수	이은주	이준현	이희영	장지환	정보윤	정찬식	조영운	차종문	최우석	하기영	허진만	황의경
여태규	유동열	윤정현	이동숙	이상숙	이은지	이지나	이희원	장진명	정봉식	정창석	조예분	차지훈	최우철	하민호	허진혁	황인성
여호근	유미화	윤정호	이동언	이상우	이익선	이지연	이희정	장하림	정봉식	정종훈	조완섭	채석용	최 원	하상현	허창환	황인중
연진흙	유병철	윤종애	이동주	이상옥	이인경	이지영	익 명	장호진	정상협	정성훈	조용언	채승기	최원준	하순금	허태희	황지영
엄장국	유성호	윤종환	이동준	이상희	이인용	이지국	임정란	전경수	정석진	정태호	조용주	채승훈	최유준	하순태	허형록	황재용
엄창홍	유수영	윤지원	이동진	이상훈	이인호	이지운	임미경	전계훈	정선미	정태훈	조장우	채종덕	최은정	하영봉	허혜숙	황재윤
예재두	유솔아	윤진호	이동철	이세호	이일성	이지원	임미숙	전관수	정선애	정해영	조재구	천상명	최은희	하은희	허혜영	황정후
오구환	유승진	윤찬수	이명숙	이소연	이장욱	이지은	임병찬	전미라	정선영	정해용	조재현	천재림	최익준	하정현	현승목	황지연
오대중	유영현	윤창민	이명진	이슬주	이장현	이지혜	임상호	전상학	정성규	정향욱	조정임	천정빈	최인숙	하정훈	현승용	황지영
오민홍	유은희	윤창영	이명환	이수연	이장호	이진	임석순	전선위	정성욱	정현식	조철우	최광호	최인열	하주희	현안나	황지원
오상민	유용식	윤태영	이무연	이수호	이재강	이진걸	임석준	전성배	정성원	정현욱	조함래	최구진	최일규	하진숙	현연수	황지현
오선문	유재룡	윤해진	이무호	이승규	이재동	이진규	임선희	전성욱	정성훈	정현민	조현욱	최구환	최일근	하정훈	현정훈	황태규
오상배	유재열	윤현우	이문정	이승용	이재민	이진우	임시연	전성웅	정소라	정현석	조현주	최금찬	최재익	하춘목	형민아	황현규
오성용	유재욱	윤훈용	이문희	이승욱	이재성	이진태	임영희	전성현	정수진	정현욱	조현준	최금화	최재영	하한정	홍갑복	황혜선
오세경	유정욱	이가영	이미랑	이승은	이재열	이진형	임옥근	전순덕	정수희	정현일	조형열	최기혁	최재호	하현주	홍기용	
오세찬	유재은	이강배	이미선	이승재	이재영	이찬연	임장범	전아영	정승민	정현진	조혜정	최대성	최정현	하형주	홍남식	
오소라	유현우	이강욱	이민주	이승준	이재욱	이창경	임정식	전언찬	정승봉	정형일	조홍률	최동원	최정호	한경문	홍상혁	
오수연	유형욱	이경열	이민원	이승태	이재원	이창수	임지아	전용기	정승아	정희선	조화재	최문환	최정훈	한경훈	홍서영	
오승택	유혜민	이경열	이민혁	이재은	이재원	이창율	임지현	전재국	정안식	정희광	조석민	최미숙	최정훈	한규식	홍순구	
오승현	유혜영	이경우	이민호	이승형	이재진	이창훈	임지혜	전재혁	정애스터	정호균	주성식	최미옥	최준환	한기수	홍순권	
오승환	유호재	이경운	이반디	이승희	이재현	이철우	임진규	전정순	정연봉	정호원	주인석	최민아	최지수	한덕희	홍순환	
오영훈	윤가연	이경학	이병관	이시은	이재형	이철우	임진혁	전찬권	정영균	정효목	주재현	최병열	최창윤	한명석	홍용석	
오윤석	윤갑식	이경환	이병기	이신영	이재홍	이충서	임현식	전찬민	정영삼	정희원	주차돈	최병욱	최창현	한세익	홍자영	
오은미	윤귀성	이경훈	이병문	이아희	이재훈	이충섭	임현규	전효정	정영수	정희원	주차돈	최병일	최계이트	한승희	홍지원	
오응수	윤금주	이경희	이병선	이애경	이정관	이태광	임형준	전효철	정영진	제갈진우	주현욱	최병일	최케이트	한승희	홍지원	
오인석	윤대원	이교은	이병훈	이양복	이정규	이필우	임혜연	정강재	정영현	제주한	주형준	최보훈	고 은	한승호	홍진양	
오임숙	윤만희	이광식	이보경	이영근	이정란	이해우	임혜진	정경미	정우진	조경근	주환형	최봉환	최하나	한영립	홍현두	
조우성	윤미정	이국환	이보람	이영민	이정만	이혜인	임홍석	정경환	정우철	조구판	지강이	최상식	최현석	한정미	홍혜정	
오지영	윤민수	이권희	이보희	이영웅	이정민	이행진	장기철	정원하	정원하	조기영	지명하	최상윤	최현중	한정희	황경원	
오진환	윤 별	이규완	이상근	이영춘	이정숙	이현경	장기현	정규식	정윤정	조동길	지선자	최서현	최현태	한종원	황경화	
오창일	윤별아	이규필	이상도	이영호	이정웅	이 현	장달순	정기욱	정은서	조무제	진경천	최석열	최형림	한준성	황 국	
오현택	윤상우	이근출	이상룡	이영환	이정은	이현경	장문석	정기자	정은하	조문형	진문선	최석훈	최형열	한지영	황규철	
오흥민	윤상일	이기성	이상배	이옥부	이정재	이현섭	장문재	정남기	정의제	조미경	진병래	최선미	최혜경	한진섭	황규홍	
옥 민	윤상현	이기혁	이상봉	이용국	이정화	이현성	장 미	정달식	정인상	조민성	진소주	최성문	최혜원	한현석	황기식	
옥수선	윤석기	이기훈	이상아	이용발	이정훈	이현세	장병일	정대성	정재경	조민제	진영주	최성수	최혜정	한정임	황덕기	
옥 린	윤성국	이길원	이상영	이용서	이정희	이현정	장삼목	정대성	정재민	조민지	진윤홍	최수호	최호림	함정영	황명균	
왕 린	윤성수	이나현	이상완	이용원	이종민	이현호	장선희	정덕업	정재진	조범근	진재윤	최소섭	최호석	하남인	황보한	
왕 민	윤성욱	이난희	이상원	이용희	이종서	이현희	장세훈	정동열	정재현	조병섭	진종길	최승환	최홍규	허만용	황부상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

필수수집정보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부자 예우를 위한 필수 정보	☐ 동의 ☐ 미동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약정금액, 납입방법, 기부목적	
선택수집정보	학교와의 관계에 따른 맞춤형 예우 용도	☐ 동의 ☐ 미동의
	학교와의 관계	
	학교 소식지 발송, 감사선물 발송, 행사 안내 등 기부자 예우 용도	☐ 동의 ☐ 미동의
	성명, 연락처, 주소	
제3자 제공정보	제공 받는 자 : 금융결제원(자동이체 납입 시)	☐ 동의 ☐ 미동의
	성명,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결제일자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준영구 (기부자의 자료 삭제 요청 시 삭제 가능)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필수수집정보 수집에 미동의 할 경우 익명의 기부자로 등록되어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부내역 조회가 불가하며 기부자 예우서비스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정방법

약정서 작성 후
사진으로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동아대학교
발전기금
검색 후 채널추가



문의 051-200-6012
팩스 051-200-6015
이메일 fund@dau.ac.kr

동아대학교 발전기금 약정서

• 기본정보

성명(기관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관계	☐ 일반 ☐ 동문 (입학연도 / 학과·과정) ☐ 학부모 ☐ 법인 ☐ 교직원		

• 약정정보

☎ 일시납 문의 051-200-6012

약정금액	매월 ()만 원		
기탁용도	☐ 학교에 위임 ☐ 학과에 기부 (학과)		

• 자동이체 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출금일	☐ 10일 ☐ 25일

20 년 월 일

기부권유자 : _____

약정자 : _____ (인)

계절의 충만함을 닮아
아름다운,
동아에 더해지는 마음

동아대는 76년 전 ‘동좌문도(同坐聞道)’라는 교육철학 아래
배움의 가치를 아는 학생들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한자리에 앉아 이치가 무엇인지를 주고받는다는
교육철학은 학생들을 세계적인 인재로 키워내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선배들의 발자취는 후배들이 나아갈 길의 디딤돌이 되었고,
후배들의 도전은 선배들에게 자극이 되었습니다.

동아의 밝은 미래를 위해 더해주시는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